

봄 · 바람 나다

- 봄바람난 자매들, 다름을 보고 함께 바라다



우 이화여성위원회 우

요가처럼 나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 플레이텍스 탐폰

요가만큼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요가 수련을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요가수련도 그 날 만큼은 불안하고 불편한 건 피할 수가 없었죠. 이젠 걱정하지 않아요. 미국, 유럽 등지의 요가 매니아들이 애용하는 플레이텍스 탐폰은 체내형이라 안전하고 편안해서 그날이 와도 평소와 똑같이 언제나 요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 날, 이젠 걱정하지 않아요! 플레이텍스 탐폰 인걸요."



www.playtextampon.co.kr
지금 가입하시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체내형 생리대

마녀들, '반전' 바람나다.

-뽀로롱 꼬마마녀를 기억하세요? 우리피리만 있어도 늘 즐거웠던 시간들이
전쟁으로 인해 위협 받고 있어요. 이제 꼬마마녀와 함께 '반전' 바람 만들어요.

페미니즘 문화제 개막제에서는

'뽀로롱 꼬마마녀'와 '우리는 쌍둥이 자매'에 맞춰 율동을 하구요.
고무줄 대회와 공기시합도 한답니다.
이렇게 즐겨워야할 우리를 위협하는 전쟁, 참고 볼 순 없겠죠?
'전쟁 일으키지 말아요'와 '평화송'도 부르면서 '반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 꼬마마녀와 함께 마녀탕을 만들까요?

중세시대, 구리구리한 세상에서 주변인으로 머물다가 결국 화형을 당해야 했던 언니들과
초경이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은 장애여성들과
결혼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비혼으로 살아가고 싶은 여성들과
경찰도 지켜주지 않는 아내폭력 생존자들과
매일매일 성폭력의 경험으로 괴로워하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오로라로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여기 모인 여성들의 힘을 더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반전 마녀탕'을 만들어요.
주술의 힘이 강해지도록 다들 힘을 모을거죠?

'내 여자 친구와 함께하는 반전'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와 여자 가족을 위해서 소원지를 달고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향을 피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향 대신 담배 연기도 환영입니다. 줄에서 맛있는 사탕을
뜯어가고 그 자리에 여자 친구들을 축복하고 전쟁 종단을 기원하는 예쁜 소원지를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유령을 부르며'도 함께 보면서 전쟁이 여성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이야기해봐요.

여/성/문/화/제/이/만/드는/반전/축제, 3월 25일 문화전로비에서 '반전' 바람 나요

첫째날...

3월 25일(화) "오아시스에 빠져 죽다"

- 개막제, 퍼포먼스/소원지 축복/공연/TWOFIVE 공연 | 12시 학생문화관 앞 광장
- 광고 패러디 전시 | 학생문화관 1층로비
- 「Colling the ghosts」 상영
- 「거북이 시스터즈」 상영회 및 출연자들과의 만남 | 2시 시네마테크
- 장애여성공감 강연회 | 5시 학관 108호

둘째날...

3월 26일(수) "어젯밤에 우리아빠가"

- '내가 살던 집' 전시 | 학생문화관 1층로비
- 결혼 퍼포먼스 | 10시 40분 학생문화관 1층로비
- '어젯밤에 우리아빠가' 기습 퍼포먼스 | 1시 40분 학생문화관 1층로비
- 「가출소녀들」 상영 | 2시 시네마테크
-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폭력과 여성인권」의 저자 정희진님의 강연회 | 6시 학관 108호

셋째날...

3월 27일(목) "I'm not that kind of girl?"

- '언니들의 방' 전시 | 학생문화관 1층로비
- 「Colling the ghosts」 상영 | 12시 생협 휴게실
- 「제비 꽃 향기」 상영 | 2시 시네마테크
- 새움터 강연회 | 5시 학관 108호



《전쟁 일으키지 말아요》

원곡: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전쟁 일으키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에게 아픈 상처로 남아요

반전하고 싶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아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함께 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바뀔거예요 많은 삶이 폭력 앞에 무너지겠죠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에도 상처로 남아 전쟁 없는 그날까지 함

께 함께 함께 가요



《평 화 송》

원곡: 우유송

전쟁 싫어싫어 폭력 싫어싫어 무고한 희생 오-노

전쟁 싫어싫어 폭력 싫어싫어 평화가 좋아 오-예

천진한 아이들이 웃음을 잃고 소중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행복했던 삶의 터전 짓밟히지요 모두가 평화 위해 힘을 모아요

전쟁 싫어 전쟁 싫어 전쟁 싫어요 정말 싫어

평화 좋아 평화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전쟁이 났습니다.

반짝

개막식에 부를 반전노래를 준비하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 전쟁, 전쟁... 다섯 번쯤 발음해 보았습니다. 제가 전쟁, 이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전쟁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에 전공수업 답사를 가서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는 저의 말에 할머니들은 어김없이 '전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아팠는가에 대한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반나절이상 계속 되었지만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구체적인 경험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도 사람은 남기 때문입니다. 전쟁 전에 온전했던 것들이 전쟁 이후에 파괴되는 것은 단순히 건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 온 몸과 마음으로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 곳에서 밥을 먹고 기도를 하고 화장실에 가야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요. 전쟁, 그 이후에 남을 허탄한 길을 맨발로 걸어가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이 폭력을 다시 겪어야 하는 걸까요.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되풀이되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듯 눈을 감아버린 이야기들. 말해지지 못한 이야기는 할머니들의 가슴에 무엇으로 남아있던 것일까요. 그녀들의 상처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나에게도 '전'이 되어 지금 이 글을 쓰게 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 전쟁, 전쟁... 내가 전쟁을 발음하는 이 순간에도 그것은 시시각각 나를 향해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의 바람을 말 할 때입니다. 돌림노래처럼 들려오는 그녀들의 이야기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입니다.

요? 전화 받고 옷 입는 중이었어요. 좀 기다리세요.”라고 말했죠.

나는 그 분이 잠옷으로 입고 있던 것 위아래가 걸옷을 걸치는 데 미처 한 팔은 끼우지 못한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팔을 마저 끼우고 단추를 잠그고 양말을 한 켤레 신고 또 한 켤레 마저 신고, 그 분의 동작을 보면서 나는 무어라 표현하지 못할 충격을 받았죠. 기자생활 하면서도 늘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차 안에서는 한숨을 짓곤 하는 나였는데, 길눈은 또 왜이리 어두운 것인지 남들 30분에 가는 곳 난 1시간 30분은 잡아야 제 때에 맞춰 가는 데, 그런 나의 걸음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번개’ 처럼 빠르게 느껴진 것입니다. 자신은 뭇도리 하나 채 입지도 못한 시간에 나는 신림역에서 집까지 눈깜짝할 새에 당도한 것이죠.

그날 이후 속도의 무서움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난히 속도가 빠른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이 일상을 살기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버스가 좀 늦어도 짜증을 내는데 한 정거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엉금엉금 계단을 오르는 그 시간을 과연 사람들이 참아줄 수 있는가 말입니다. 당장 신호등 파란 불 바뀌는 것도 못 참아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를 아십니까.

우리는 장애인의 인권을 논하면서 쉽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속도를 감 잡지도 못한 채 사는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일어나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집을 나서고 걷고 모든 것이 ‘다수의 사람’보다 훨씬 더 느린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을 이 ‘빠른’ 사회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느림’에 익숙한가요.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길을 나섰는데 사람들이 나보다 10배는 더 빨리 움직인다면? 주위를 걷는 사람들이 헉헉 바람을 일으키며 지나가고 버스와 전동차가 눈깜짝할 사이 정거장을 지나쳐 버린다면?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있다.

박영희(장애여성공감 상임대표)

1. 장애와 여성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장애인의 발생 퍼센트는 국민의 10퍼센트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대략 450~500만으로, 그중 장애여성은 225~250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에서 장애여성의 등록은 장애남성에 비해서 3분의 1정도로 낮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장애여성들이 우리 사회제도에서 장애인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가족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장애여성들은 가정의 깊숙한 곳에 고립되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여성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은 듯이 아예 논의로 취급되며 장애여성의 억압적 상황들을 사회화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장애여성들은 장애 있는 몸을 가진 여성으로서 장애의 차별과 여성의 억압을 고스란히 경험하면서도 그것들을 장애여성들의 개인적인 것으로 떠 안고 살아왔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여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5~6년에 불과하다. 장애인이라는 집단 속에서 성적인 정체성도 없이 살아왔고,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장애인계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에게 부과되는 몫의 활동을 해왔었다. 또한 권력의 중심에서는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졌었고 장애여성의 문제는 언제나 차후의 사안으로 밀려나있을 수밖에 없었다.

여성계에서도 비장애여성 중심이었고 장애여성을 장애인의 문제로 바라보았지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장애여성의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았었다. 장애와 여성의 틀 밖에 있는 장애여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회의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자연스러운 도태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 개인적 차원에서 장애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장애극복 신화들을 생산해냈다. 그렇지만 사회적 지원은 없고 인간의 의지만을 강요되고 가족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사회적 억압은 장애여성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게 만들었다. 이동권을 비롯한 교육권, 노동권에 있어서 장애여성은 철저히 배제 당하고 있는 것이다.

2. 장애여성의 현실

장애여성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2000년 전국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무학 및 초등학교 학력이 68%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재가여성 장애인 욕구조사 프로그램개발'에서는 4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2.8%(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개발 2002년)에 불과한 결과로 나타난다.

낮은 학력에 낮은 경제활동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조사에서도 나타나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경험으로도 장애여성의 삶의 척박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다.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의 현장은 단순노무직이고 서비스 종사가 주류를 이룬다. 이런 경제활동은 그나마 장애정도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고, 사실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는 장애여성들은 집안의 가족들 속에서 의존적인 상태로 자신의 존재성을 인식하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엔 집안에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실은 대부분의 장애여성들이 가사를 맡고 있다. 그러함에도 장애여성들의 노동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끌어가거나 선택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삶의 지원자로만 놓여지게 한다.

이러한 지원을 가족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결국 장애여성이 나이가 많아지면 가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시설로 보내어지기 위해 여기저기 방황하게 되기도 한다.

3. 사회에서 받는 억압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는 사회의 정화적인 존재로 나이와 성숙도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소녀적의 이미지로 규정하고 장애여성의 목소리는 미숙함으로 받아진다.

그래서 '알프스소녀의 하이드'에서 하이드의 친구인 장애소녀 클라라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하얀 얼굴에 긴 머리, 휠체어에 앉절하게 앉아 천사 같은 모습을 말이다.

최근에 나타나는 장애여성은 이문열의 '아가'에 나오는 당편이,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에 나오는 공주의 모습은 클라라 같지 않아도 사회의 정화적 이미지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선택한다는 그림은 절대 용납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소설에서나 영화에서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없고 화자를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주변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진다.

마찬가지로 소설과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당편이에게 공주에게 사회의 접근은 언제나 성폭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장애여성의 사회적인 취약성 때문이고 사회적 배경 없음이 지역 안에서 온갖 폭력의 대상이 된다.

집안에서는 가족들로부터 무시와 소외의 폭력을 경험하고 지역 안에서는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가정폭력은 장애여성이 선천적 장애나 후천적 장애를 가지게 됨으로 가족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없음과 사회적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장애는 가족들의 부담이 되고 가족중의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이로써 장애를 가진 여성에게 부과되는 성역할(가사, 양육, 남성에 대한 서비스)은 여성으로서 수행할 수 없는 것에 따라오는 억압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한다. 여성에게 부과되는 고정된 성역할에 대해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여성이 여성으로서 존중될 수 있는 사회의식이 형성된다면 장애를 가진 여성이 무능한 존재로 가치절하 되는 억압은 없을 것이다.

또한 장애여성의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처음으로 사회의 문제가 되어 수면으로 떠오른 사건은 2000년에 일어났던 '음촌리에서 일어난 7년 간의 성폭력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그것에 따른 성과로서 장애여성전문성폭력상담소들이 전국적으로 개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장애여성들의 성폭력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장애여성의 성폭력문제는 비장애 여성들과 같이 같은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장애여성도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비장애여성과 자매애로 연대감을 이루어가고 있다.

4. 장애여성의 등장

장애여성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말해 내면서 힘을 가지게 되었다.

96년부터 시작된 장애여성운동은 '장애여성' '여성장애인'이란 말을 만들어 내었다. 이로써 장애인으로 통칭되었고 장애여성의 노동, 교육, 임신, 출산, 양육의 문제들과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욕구와 인권도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이제 장애여성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

사회의 가장 열악한 위치에서 자신의 삶의 짐을 온전히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던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탓만이 아니었다고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를 꾀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속도를 드러내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에 사회는 놀라워하고 있다.

더 이상의 당편이와 공주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장애여성의 모습은 앞으로 어느 곳이나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억압을 거부하고 차별을 거부한다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다. 그래서 난 당당하다. 라고 장애여성은 말한다.

다. 내가 장애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의 인권이 노리개가 될 수 없다.

광고패러디 - '화이트'편



생리대, 깨끗해요???

-누에

1. 생리는 불결한 것?

중학교 때 얘기다. 나는 초등학교 졸업식 전 날(잊지도 않아요~;) 초경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만 해도 생리 주기가 일정치 않아 생리란 녀석은 한 달 중 어느 때고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기 일쑤였다. 생리대를 따로 팔지도 않았고 한 명 한 명 불집고 생리대 있느냐고 묻다 보면 쉬는 시간 10분이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일단 터졌다 하면 나는 교탁 앞으로 나가 큰 소리로 "생리대 있는 사람~~~~?"이라고 묻고는 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그런 걸!!" 꼭 그렇게 큰 소리로 해야 하나?였다. 그래, 여학생들 사이에서조차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는 게 생리대다. 그래서 생리통이 있어도 다른 핑계를 대기 싫어 꼭 학교에 있어야 했고 남자 점원이 계산을 하는 마켓에서 생리대를 살 때는 원지 모를 수치감을 맛보아 했고 생리를 할 때면 내 몸이 더럽다는 생각에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해야했다!). 왜 우리는 초경부터 폐경 때까지 한 달 중 일주일을 불결한 여성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는 한 달 중 일주일 여성이기에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라구?

2. 생리는 여성의 모든 것?

앞뒤가 잘 들어맞지는 않지만 생리는 불결한 것이라는 인식과 동시에 생리는 여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도 공존하고 있다. 그 것은 여성이 하나의 인격체이기보다는 아이를 낳기 위한 종족 번식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다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는 사고방식을 대변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폐경기의 여성들이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생물학적 성과는 다른 삶을 사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생리도 못 하는 게(아이도 못 낳는 게)!"라는 비난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물론 생명을 상징하는 생리는 소중한 것이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성의 몸도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생리를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생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생리를 하는 여성'으로서 보호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우리의 삶을 살길 원한다.

3. 생리대, 참 예쁘기도 하지?

생리대에는 패드와 탬폰3) 두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의 생리대 모두는 잘 빠졌고 보았다4) 심지어 날개 달린 생리대까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생리대에도 문제는 있다. 당장 나만 하더라도 생리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대놓고 마음대로 쿨을 수도 없는 그곳이 가렵기도 하고 따가울 때도 있고... 이런 말을 하면 1)에서처럼 불결하게 저런 말을 막하라고 불쾌해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보자. 생리할 때 가렵거나 따갑거나 짓무르는 경험을 단 한 번도 겪지 않은 여성이 있는지. 이제까지 우리들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불편함을 넘겨왔다. 하지만 생리대는 다이옥신에 의한 자궁내막증 발병 가능성까지 갖고 있고 특히 탬폰은 독성 쇼크 증후군을 유발할 수도 있다. 우리가 계속 참고만 있다면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피부질환과 위험한 질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생리대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원하고 생리대 제조과정에 대한 공개와 생리대 포장 겉면에 생리대의 위험성 및 부작용을 기입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표시제 도입을 요구한다.

4. 생리대에겐 부가가치세?

나의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은 가정에서 생리대 배급제가 이루어져 엄마에게 한 달에 몇 개씩 정해진 개수만큼만 배급받았다고 한다. 엄마, 언니, 본인까지 집안에 모두 생리하는 여성이 3명인데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리대가 비싸면 아예 쓰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리대는 비싸다고 해서 사지 않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아껴 쓴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생리대는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생리대 부가가치세 폐지 문제는 2001년 월경 페스티벌에서부터 크게 대두되어 왔지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폐지가 남성들의 반대 때문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생리대를 생필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들만 쓰는 물건이 어째서 생필품이냐고? 그렇게 따지면 채식주의자들은 왜 육류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지 따지고 들어야 하는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생리를 한다. 생리 파업이라도 해서 모두 빨갈게 물든 옷을 입고 피를 뚝뚝 흘리고 다녀야만 생리대가 생필품이라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또한 남성들은 우리들에게 국가에 생리대의 과세 폐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생리대 제조 기업에 가격인하를 요구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생리대 부가가치세 폐지 문제는 단순히 생리대 가격의 문제만은 아니다. 생리대 부가가치세는 여성에 대한 억압일 수 있다.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5)

주

- 1) 여러분, 혹시 그 거 아세요? 잘 안은 신성으로 되어 있어 침입한 세균을 잘 죽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리할 때 질을 알칼리성의 배누나 욕육용제로 너무 자주 씻게 되면 잘 안이 중화되어 세균감염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 2) 그래서 생명의 몸-여성의 몸을 공격하는 월경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어요. 올해 벌써 제5회 해네요~
- 3) 탬폰이 뭐냐구요? 탬폰은 질내로 삽입해서 쓰는 생리대로 생 위험이 없고 사람마다 느낌은 다르겠지만 보통은 패드보다 활동하기가 편하다고 해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탬폰을 쓰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친구들은 차내의 손상의 이유로 탬폰 쓰기를 꺼려하더라고요. 여성의 순환성 건강관리기 아성에 중심적인 삽입체스에 대한 고장관념 등등도 다 여성역업이라는 거 아세요? 아이도 탬폰의 대중화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 4) 유난히 하면 생리대에 문제가 제기됐다. 바로 염소표백 피부에 직접 닿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염소표백까지 해서 생리대를 하얗게 만들려는 것은 생리는 불결한 것이므로 생리대는 깨끗한 하얀 색이어야 한다는 생각. 여성의 순환성-성적 역압의 반영일 수 있다.
- 5) 생리대 부가가치세는 꼭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고 폐지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요? <http://moonfree.womenlink.or.kr/> 이곳은 여성민주회의의 생리대 UP DAWN 캠페인 사이트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생리대 과세 폐지 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에 빠져죽다

토마

영화 「오아시스」에는 뭐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마음만은 순수한 남자주인공 '종두'가 나온다. 영화 「오아시스」에는 크게 움직이거나 크게 소리치지 않는 만만한 장애여성의 집에 몰래 문을 따고 들어가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성폭력 가해자 '종두'가 나온다.

그 날 이후 순박한 청년 종두는 여자주인공 '공주'에게 꽃을 보내 사과하고, 공주는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종두에게 호감이 생긴다.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종두는 '니가 너무 예뻐서 그랬다'는 가해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꽃으로 가해사실을 미화시키고, 감독은 보잘 것 없는 장애여성은 성폭력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듯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사랑할 것을 종용한다.

종두는 공주와 너무 연락을 하고싶지만 경찰에 쫓기는 상황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자 지나가던 여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전화를 할 만큼 열정적인 사랑을 한다.

종두는 자신이 공주에게 폭 전화를 해주어야 걱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강박적 증세를 보이며 지나가던 여성을 좁은 골목 안에 끌고 들어가 무지막지한 힘으로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가슴 부분을 조이며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키고 여성의 귀에 입을 댄 채로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명령한다.

영화에서 우리는 사막 밑에 감춰진 희망, 오아시스를 발견한다.

영화에서 우리는 같은 장애를 가진 남성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장애여성을 발견한다. '희망'이란, 정상적인 여성을 향한 남성들의 판타지로 채워진 오아시스이며 여성은 매일매일 그 곳에 빠져죽고 있다.

정상성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장애인,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시나

얼마 전, 포마 친구를 만나서 얘길 나누다 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 애는 자신의 친구들에 대해서 종알종알 설새없이 떠들다가 자신이 싫어하는 친구라며 이야기한다.

"갠, 애자야." 애자? 애자라..

이름값고도 한도끝도 없이 놀려대는 짓궂은 아이들이라니 생각했는데...

세상에 웬걸.. 장애자, 그래서 애자.

뭔가 부족하고, 열등하고, 나와는 절대 같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존재- 장애자? 사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모를 리 없지.

그런데 얼마 후, 난 그 아이보다도 나에게 더 놀랐다.

장애인에 대한 짧은 생각을 거치면서도, 그들 중 '여성 장애인' 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놓고 있었던 것...

장애인으로서 한 번 소외당하는 게 아니라, 장애 '여성' 이기에 또 다른 소외를 감당해야만 하는 그들을 어찌서 난 생각하지 못했을까.

나의 첫 생리 때 기꺼이 기뻐해주셨던 나의 엄마가, TV 속의 그의 생리에 대해선 '몸도 불편한데 생리까지 해서 불편하겠다' 라고 애처로워하셨던 걸 안다면, 그는 아마 많이 아팠을거야.

어릴 적.. 다가오던 그놈 앞에 무기력했던 나처럼, 그도 그 순간을 견디는게 고통스러웠겠지. 아직도 많이 힘들텐데... 하지만 자신을 표현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보단 훨씬 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 그는 과연, 들어주려 고도 하지 않는 곳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내게 있어, 그가 여성이었든가. 나 역시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만 그를 바라봤던 게 아닐까.

여성인 그가 갖는 소외는 나의 것과 같지만, 또 얼마나 다른지...

살이 찼네, 화장도 안하네 하며 '여자답게 살 것'을 강요당하는, 한여름 홀몸대는 시선에 물건이라도 된 기분이 드는 나와, '불편한 몸에 쓸데없이 생리는 왜냐'며 자신을 여성으로 바라보는 것조차 금지당하는 그, 그놈 앞에서 소리치고, 도망치고, 이제는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얘기하는 나와, 자신이 여성임을 자각하는 것조차 금지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 쉽게 폭력에 노출되는 그, 그리고 막아지는 그의 입.

이제 보여...

같지 않음에도 같은 감정이 느끼는 것이, 함께 아픈 것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었어.

순수와 희생의 이미지로 타자화되는 매체 속 '장애여성' 이미지

반짝

예술은 인간 삶의 유한성에서 출발한다.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는다는 인간의 절망적 자각은 오히려 그로 인해 예술 안에서 '먼 곳'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은 인생의 가려지고 어두운 부분을 다룰 때 그 울림이 크다고 한다. 방송 매체를 예술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일단 접어둔다 할지라도 그 역시 이러한 예술의 속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속성을 적당히 버무려서 감동을 급조하는 방식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장애인'의 형상화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장애'를 지닌 인간의 삶 특히 '장애여성'의 이미지는 오랜 시간동안 거의 비슷한 패턴의 유형으로 반복되어 우리가 지닌 판타지를 강건하게 만드는데 일조 했다. 그 것은 순수와 희생의 형상화된 '사회정화'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박제된 이미지였다.

이승환의 뮤직비디오 '잘못'을 보면 '아름다운' 장애여성이 등장한다. 이 '소녀'의 외양은 긴 생머리와 흰 원피스로 대표되는 순수한 처녀성의 이미지이다. 어느 날 이 '소녀'의 아버지는 길거리에 버려진 고철 로봇을 발견하게 되고 이 로봇을 집으로 데려온다. 그녀는 친구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고독은 이 여성의 방이 보여주는 폐쇄적 구조와 호트러짐 없는 흰 침대 시트의 이미지가 되어 드러난다. 소녀와 로봇은 금새 친구가 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그녀의 휠체어가 고장난 이후 그들의 행복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휠체어가 없는 그녀는 작은 시도조차도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창백한 하얀 방에 머물러 있다. 이를 본 로봇은 무언가를 결심하게 되고 다음 날 '소녀'의 방에는 새 휠체어가 놓여있다. 처음에는 좋아하던 '소녀'가 점차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자세히 살피자 그것은 로봇이 해체되어 만들어진 휠체어였다. 오염하는 '소녀'와 교차 편집되어 나타나는 로봇과 아버지의 '거레' 장면은 그것이 지닌 상징성으로 섬뜩하기까지 하다. 자신의 '희생'으로 '소녀'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로봇은 자신을 주워 온 아버지를 찾아가고 아버지는 로봇을 휠체어로 만든다.

여기서 뮤직비디오의 맨 첫 장면을 기억해보면 아버지는 로봇을 주워서 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로봇에게

딸을 '맡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녀'는 로봇에 의해 '보호' 받아야하는 '아름답고 순결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로봇의 '희생' 역시 버려진 자신에게 '새 생명'을 준 은인에 대한 '보은'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전에 이 여성에 대한 '권리'를 지녔던 인물이다. 그는 딸이 밤에 나가는 것보다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기를 원한다. 그는 끊임없이 장난감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성능이 좋은 휠체어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그나마도 로봇이 생기고 그것이 이 여성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자 새 휠체어를 만들어 주지도 않는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 여성에 대한 '소유권'인 것 같다. 일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로봇에게 '양도'하는 듯 하지만 그것은 '편의제공' 차원의 시혜일 뿐이다. 로봇이 지닌 은색의 금속성은 현대문명의 속성이다. 물질문명이 발달하는 만큼 장애여성의 삶이 나아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하철이 생활의 '편의'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정작 장애여성들이 그 '편의'를 누리기에는 넘지 못 할 계단과 버티지 못 할 리프트가 너무 많다.

뮤직비디오로 돌아가서 맨 처음 '소녀'의 휠체어가 망가지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야기의 구조 속에 숨어 있는 '본심'을 엿볼 수 있다. '소녀'와 로봇이 밖으로 나와서 거리를 구경하는 유일한 장면을 보자. 로봇은 '소녀'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그 와중에 휠체어가 굴러 떨어지면서 망가지게 되는 것이다. '금속성으로 인한 파괴'를 '금속성으로 보상'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지하철 리프트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면 단순히 리프트를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현대 문명에 대한 권리를 전 계층은 실제 장애 여성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고민하지 않는다. 조용히 예전처럼 자신의 권리 안에 들어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둘의 '거레'에 정작 그 여성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없다. 주체가 되어야 할 당사자를 져쳐두고 하는 '그들 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장애여성에게 함께 이야기하는 친구보다 휠체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인가. 그러나 이 이야기의 교묘함은 '소녀를 위한 로봇의 희생이 감동적이지 않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로봇의 몸체가 불에 타는 마지막 장면은 로봇의 은빛 이미지와 대조되는 강렬한 불의 이미지이다. 로봇의 '희생'이 부각되면서 보는 이에게 감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장애여성은 백색이미지로 형상화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 받을 수 있는' 장애여성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장애여성의 현실과 괴리되어 뒤틀려지는 수동적인 순결함, 순수한 백색이미지의 판타지는 매체를 통해 확고히 재생산된다.

장진 감독의 '웰컴 투 동막골' 에도 '이연'이라는 장애여성이 등장한다 언제나 주변인으로 존재하던 그녀의 죽음은 모든 남성들을 화합에 이르게 한다. 정서적 고향으로서 존재하는 장애여성의 이미지는 그 동안 많은 작품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난 것이다. 남성들이 자발적인 희생으로 전쟁을 막아내기를 '결의'하는 장면

에서 비장한 음악이 흐르고 '이연'의 이미지가 온빛으로 반짝인다. 여기서 장애여성은 세상을 구원하고 정화하는 빛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것은 장애여성을 타자화해서 구원과 정화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 안에서 장애여성은 무성화되어 남성들의 판타지에 갇히게 된다. 이것은 폭력으로서의 동경이며 강요된 이미지이다.

순수한 백색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세상을 정화할 장애여성은 현실이 아닌 그들의 상상 속에 존재한다 그 상상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이야기 될 때 상상은 폭력이 된다. 장애가 있는 여성은 '현재', '여기' 분명히 있다. 상상 속의 이미지가 실존하는 장애여성을 억압해서는 안된다.

소수자의 경험과 고통을 드러내고 그 억압의 구조를 바라보는 것이 예술에서 이야기 할 '화해'이다. 그 '화해'가 소수자의 고통을 이용해서 억압을 공고히함으로써 얻어지는 나머지 사람들간의 '화해'일 수는 없다. '무용'한 예술이 '유용'할 수 있는 길은 그것 뿐이다.

여성위원회와 시네마페프가 함께 하는

여성영화제

3월 25일-27일, 늦은 2시



첫째날, <거북이 시스미즈> - 이 연
둘째날, <가을 소녀들> - 김 콘지노로 지바 미요-호세이니
셋째날, <개미꽃 향기> - 아무도 믿지 않는다.
- 마리아 시스미즈

이 세 영화로 작은 대학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25 첫째날 '모아나에게 바쳐진다.'

<거북이 시스미즈> 한국 / 이 연 / 1998 / 47분 ... 성명 조 수진공들과 함께 하는 사건이 마련됩니다.
영화는 종종 정적이며 '영화', '영관', '순환'의 특징으로 5년이 지난 여느 날에 시작한다. 스토리의 큰 줄은 이사이다. 동선은 적게, 눈
'는 날개,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가 이들에게 맞춰져 있었지만, 표정이나 화사는 이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고 가버린다. 감독은 그들의 속
드라 맞추어 조물지 그들의 입상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영감을 통해 이들이 처음으로 끝까지 영화의 존재임을 말한다.

3/26 둘째날 '이연에게 바쳐진다.'

<가을 소녀들 Runaway> 영국 / 김 콘지노로 지바 미요-호세이니 / 2001 / 87분
영화의 공간은, 가족의 학대 속에서 집을 뛰쳐나온 소녀들이 머무르는 여객선의 침소년여성 실버이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이변의 거대한 변화를 접한다. 이제 매일이나 실록, 열악 마위로 여성들을 가부장제의 속박에 묶어둘 수 없다. 여성 실버는 이 소
녀들이 복잡한 가정 문제의 한 측면에서 서서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화는 따뜻한 시선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존가와 자존, 사랑을 그리고 있다.

3/27 셋째날 '가을에게 바쳐진다.'

<개미꽃 향기> 아무도 믿지 않는다. Violet Perfume: Nobody Hears You. > 멕시코 / 마리아 시스미즈 / 2001 / 90분
날길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언제나 약자다. 특히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록 여성은 더욱 그 힘을 잃는다. 이 영화의 저서
저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어떤 가부장적 속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폭력의 위협 속에 항상 노출되어있다. 특히 그녀에게 '가해인' '갈
간'이라는 폭력은 그녀에게 극복할 수 없는 실력으로 다가오고 모두의 무관심 속에 그녀는 무너져간다. 이 영화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
이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폭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광고패러디 - '원제'편

<성폭력-지워지지 않는 상처> 난상토론

토마 : 술 광고는 꼭 여자 모델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 술이 있는 곳에 여자가 있다는 거잖아. 이 사진처럼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있는 모습이나 광고copy 모두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키고 있어.

쇼콜라 : 많은 광고들이 소비주체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모델로 하잖아. 술이 남성의 소유물이 되듯 여성도 같은 맥락에서 읽히는 것 같아.

토마 : 이걸 정말 보는 여성과 모델이 된 여성 모두에게 폭력적이라. '유혹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라니..

쇼콜라 : 그래, 맞아. 그런데 이런 광고가 여성들에게 폭력적이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남성 중심적인 사고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유혹하는 사람이 여자인 것처럼 광고가 실렸잖아. 남성들의 판타지가 그대로 광고에 실린 거지.

호수 : 맞아. 마치 여성 스스로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원하는 것처럼...

토마 : 섹슈얼한 코드를 원하는 (남성)소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광고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 우리는 이런 광고를 보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만 남자들은 이런 광고를 통해 여성이나 섹스에 대한 자신의 판타지를 충족시키면서 우리와 다른 느낌을 받는 거지. 여성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난 전 시리즈 광고도 폭력적이었어.

쇼콜라 : 그래, 맞아. 남성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판타지에 스스로 갇히는 거야.

토마 : 여성이 남성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바라며 유혹한다니 정말 짜증나.

쇼콜라 : 뭘해놓는 것도 아니고...

토마 : 더군다나 여기 이 흔적이라는 게 남자 지문 안에 상표 그림을 넣은 거잖아. 여성의 몸에 자신의 지문으로 흔적을 남긴 남성... 진짜 싫어!

호수 : 이런 광고 말하자면 끝이 없어...

토마 : 술병 디자인만 해도 그래. 여성의 실루엣을 따라 만들잖아. 그걸 쥐고 마시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고...

호수 : 그런 디자인 자체로도 기분이 나빠져.

쇼콜라 : 특히 음주광고 같은 데서 대상화되는 여성의 몸은 예쁘고 날씬하잖아. 이런 남성들의 판타지에 부합하는 여성은 대상화되는 데서 오는 폭력을 느끼고 부합하지 않는 여성은 대상화되지 못하는 데서 폭력을 느끼게 되고, 너무 싫어.

토마 : 그래. 그리고 저런 포즈를 모델여성 자신의 포즈라고 할 수 있을까? 날씬한 몸의 굴곡과 살짝 벌려진 입술 기다란 손가락, 잘 손질된 손톱,, 저건 위스키의 주고객이 되는 남성들이 만들어놓은 포즈에 불과해. 모델은 모델료로 돈을 받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지.

쇼콜라 : 성폭력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일상 속에서도 많이 퍼져 있어. 개념규정조차 어려운 문제야. 우리가 여성을 대상화하는 광고를 100번 보고 볼 때마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우리는 그 날 100번 성폭력을 당한 거잖아.

호수 : 하지만 그런 광고를 보고 무심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느낄 때면 너무 슬퍼.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적인 사고에 세뇌되어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되고...

쇼콜라 : 또 광고에서의 여성의 성적대상화 정도가 심해지니까 폭력에 무감각해지는 것도 있어. 이젠 어떤 광고는 '저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느끼게 되잖아.

토마 : 아, 정말 싫은 게 너무 많아.

3월 26일(수) 둘째날 어제밤에 우리 이야기

♥ '내가 살던 집' 전시회 : 화성문화관 1층 로비

- 기존의 가족제도와 결혼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전시회를 가집니다.

- 이시복씨를 소개한 친인척과 친지들도 함께 전시합니다.

♥ 결혼 퍼포먼스 : 화성문화관 1층 로비 / 10시40분

♥ '어제밤에 우리 이야기' 기습 퍼포먼스 : 화성문화관 1층 로비 / 1시40분

- 어제밤에 우리 이야기가 다들 잘 보셨는지 모릅니다.

- 한 손에는 피자를 들고 찾아와주세요.

♥ '가출소녀들' 상영 : 시네마 데크 / 2시

♥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폭력과 여성인권'의 저자

정의진 선생님의 아내폭력 강연회 : 학관 108호 / 6시

가깝지만, 너무 멀어보이는..

사이사이 이야기

쇼콜라

가정 안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일상, 너무나도 익숙해진 폭력들.. 하루하루 겪는 문제들을 문화제 형식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고민스럽게 했고 괴롭게 했다. 우리가 담론화하려고 시도하는 부분이 어떤 여성주의적인 지향이나 결과물이 아닌,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들이라는 부분에서 더더욱 그랬다.

일상을 소재로 문화제화 한다면 어떠한 얘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가족제도나 결혼제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억압적이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제도에 편입되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사회전반적인 제도에 안티를 걸기에는 아직 목소리가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얘기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집안 일'로 치부되며 감춰졌던 아내폭력의 문제, 집안에서의 여성학대 문제, 폭력적인 가족제도와 결혼 제도의 문제 그리고 비혼여성들의 목소리와 대안가족을 향한 염원까지..

페미니즘 출판물은 '어제밤에 우리 이야기'라는 소규모 아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내가 살던 집' 전시회를 통해 기존의 결혼제도와 가족제도에 대해 고민해 보고, 결혼 퍼포먼스와 '어제밤에 우리 이야기' 퍼포먼스를 통해 일상화된 폭력을 씌어보자. 그리고선 시네마데크로 달려가 '가출소녀들'을 통해 집 안 폭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그 심각성을 실감해 보자. 5시에는 학관 108호에서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폭력과 여성인권'의 저자 정의진 선생님의 아내폭력 강연회를 듣자.

가정사를 바깥에서 이야기하다

시나

가족'이라는 단어를 대면 대개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전형적인 가족을 떠올린다. 따뜻하고 자상한 아빠, 상냥하고 아름다운 엄마, 그리고 활달한 성격의 아이들.

이 가족상이 정말 '가족'을 대표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서라도, 과연 이러한 가정과는 다른 모습의 가정에서만 폭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분명 '아니다'이다7)

혹자는 아내가 맞을 짓을 했으니 때렸겠지, 하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도 '남편이 맞을 짓을 했으니깐 맞아야겠군'이라고 말하진 않는다. '복어와 여자는 사흘에 한번씩 두들겨야한다'와 같이 이어져 온 유구한 아내 폭력의 역사는 지금까지 쭉 그 폭력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이어져왔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폭력은 '집안 일'로 간주되어 가정폭력특별법이란 게 생긴 뒤에도 경찰에조차 보호받지 못했다. 물론,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겠지' 따위의 생각을 하는 사회에서 그녀가 비발 언덕은 거의 없었다. 사회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을 눈감아줬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맞을짓한 년'으로 매도해 그녀가 제기할 문제 자체를 묻어왔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약간의 변화가 생겨 드디어 '가정 폭력은 범죄입니다'라는 문구가 버스에 붙여있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때리는 남편은 대개 무식하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리가 없다는 거였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지성적이고 멀쩡한' 자신들은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니 걱정마'라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밖에서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 역시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한다. (그래서 자신의 폭력이 들롱나도 오히려 아내가 맞을 짓 했을거라는 주변의 동조까지 얻어낸다.) 대학 교수가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것은 사실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 사이엔 국경도, 종교도, 학벌도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아내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폭언이나 폭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때린 뒤, 아내가 원하지 않아도 많은 남편들이 억지로 '성관계'를 맺으며 '화해의 표시'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에게 맞으며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을 아내에게 이것은 '성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화해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려는 남편의 폭력을 밑바닥까지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남편의 또 다른 폭력을 '아내 강간'이라고 이름 붙이기에 이르렀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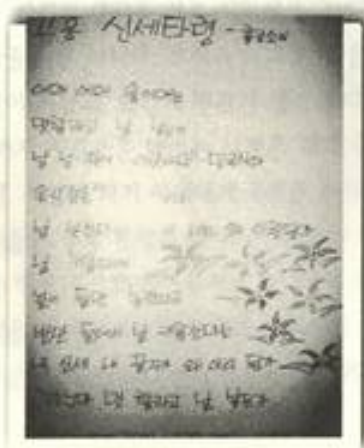
아내 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멀리 있지 않다. 옆집, 앞집,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옆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다면 주저없이 문을 열자.

주

6)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가족은 한국의 가족 전체의 빈도 되지 않는다.

7) 실제로 때리는 아내에 대한 최초의 조사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1983)에서 조사대상의 42.2%가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1992)의 경우는 여성을답자(540명)이 45.8%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부녀상담소 이용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가 61.1%로 나타났다.

8) 이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계약이 아니라 서로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아젯밤에 우리 아빠가?

- 아내폭력 새롭게 보기 -

정희진⁹⁾

- * 성 역할(젠더)이 평등하다면, 단지 '다름' 이라면 -
- 성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가? 동의 가능한가? 처벌/보상 기제가 같은가?
- * 인류가 발명한 가장 폭력적인 두 가지 조직은 전쟁과 가족이다.
- * 아들은 어머니를 죽이고 버릴 수 있다. 딸은 어머니를 죽이지만 버릴 수 없다. 버리지 못한 어머니의 시체를 껴안고 울며불며 사막을 헤매는 것, 그것이 딸들의 인생이다. Locon
- * 출산은 전쟁에는 미달하되, 전쟁만큼 사망률이 높은 유일한 사회 활동이다. Ti-Groce Atkinson
- * 여자가 자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면, 성대가 있는 사람은 모두 오페라 가수가 되어야 하는가? Gloria Steinem
- * 여성이 자기 몸의 소유권을 되찾는 것은,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 보다 '더' 큰 혁명을 인류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Adrienne Rich
- * 여성에게는 일상이 전쟁터이다. 여성은 기억상실증을 통해서 생존자가 된다. 강간과 성 관계를 식별하는 것은, 괴로워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강간당한 여성의 고통은 남성이 저지른 강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별받는 것이다. Andrea Dworkin
- * 여성에게 섹슈얼리티는 개인적 표현이 아니라 폭력을 관찰시키는 사회제도이다. Monique Wittig
- * 이성을 잃었을 때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의해 이성이 실현된다.

주

9) 김희대 강사(여성학), 사단법인 한국여성학연구회 전문위원
저서 -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가정폭력과 여성인권'(2001, 도서출판 토하나의문화)
*한국여성인권운동서적공제회, 1999, 도서출판 한울) ou67@chol.com

가정폭력이 발생하지는 5,000년이 넘었지만, 인류가 그것을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오랫동안 '숨겨진 범죄'였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실상을 믿기 힘들어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가해자(남성) 중심적인 편견도 여전하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이미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되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에 소개된 사례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매우 충격적이다.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피해 여성들의 현실은 대중 매체에 소개된 '극단적'인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정은 휴식처'라는 통념은 가정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남성)의 생각만을 반영한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가정은 노동의 현장이고, 어떤 여성과 아이들에게는 폭력의 공간이다. 가정이 안식처라는 말은, 사실 이라기보다는 희망 사항이거나 현실을 위장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다. 가정이 평화로운 공간이라는 일반적인 시각 때문에, 사람들은 가정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수준의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모든 세상사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보이지 않게 되고, 따라서 없는 문제로 인식하기 쉽다.

며칠 전 나는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개최된 '여성부의 여성폭력추방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여성부 초차..." 나는 놀라웠다. 여성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율은 7.3%라는 것이다(기존의 실태 조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7.3%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개인 병리의 문제라고 보는 그 보고서의 입장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3년 <여성의전화>라는 여성단체가 여성들의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부터이다. 그 뒤로 정부 기관, 연구자, 사회 단체에서 조사한 거의 모든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서, 기혼 여성들의 가정폭력 경험율은 과반수를 넘었다. 어떤 연구자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50% 이상이 남편에게 학대당한다고 하고, 여성부 보고서처럼 어떤 연구자는 10%가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가정폭력 실태가 조사 기관마다 다른 수치가 나오는 것은, 이 문제가 조사자의 관점에 따라 폭력으로 인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일 똑같은 행위에 대해 어떤 사람(때리는 남편)은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맞는 여성)은 폭력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가정폭력은 '특정한 시각'을 가졌을 때만 보인다. 즉, 일상적인 가부장제 안경이 아닌 다른 안경(여성주의)을 썼을 때만 보이는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해서는 그 '특수 안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편, 실제로 가정폭력이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여성의 단 1%만이 경험한다 해도,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일까? 만일 전국민의 5%가 테러를 당하거나, 수해를 겪었다면, 절도를 당했다면, 그것은 과반수가 안 되기 때

문에 개인적 문제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언제나 여성이 겪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문제는 아무리 피해가 심각해도 언제나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것일까?

이제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폭력 특히 아내구타를 일탈(비정상) 행위로 보면서, 주로 소위 문제 가정에서만 폭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간주해왔다. 그래서 흔히 남편의 외처증, 스트레스, 알코올, 열등감, 경제적 무능력, 분노 등 가해자의 '이상 심리'가 가정폭력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를 때리는 것이 그토록 당연하단 말인가? 아내를 실직을 당해도 남편을 때리지 않는다. 부부간 대화 기술이 부족해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왜 언제나 때리는 사람은 '남성'이고 맞는 사람은 '여성'일까? 남편이 스트레스 때문에 때린다면 왜 직장 상사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안 때릴까? 술 때문에 때린다면 왜 아내들은 술을 먹고도 남편을 때리지 않을까? 남편의 분노 처리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이라면 왜 그 분노를 언제나 '집안에서만' 표출할까? 폭력 행위가 손실(형사상 제재, 이혼)보다 보상(분노 발산, 타인을 통제)이 크기 때문에 사용된다면 왜 여성들은 이 방법을 쓰지 않을까?

남편의 폭력을 참고 있는 피해 여성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접근은, 여성의 무기력이 폭력을 '유발'한다고 본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의 심리 상태 - 보복에 대한 두려움, 자아 의식 상실, 판단 능력 결여, 모순에 가득 찬 폭력 대처 기술 등 - 는 폭력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만일 피해 여성의 상태가 폭력의 원인이 된다면, 무기력한 여성은 모두 맞아야 한단 말인가? 이러한 사고 방식은 남성의 폭력 행동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는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 있다는 문화를 지지하게 된다.

아내구타는 여성 억압 현실의 반영이지, 개인 심리의 문제가 아니다. 아내폭력이 전쟁, 고문, 조직 폭력 등 일반적인 폭력과 다른 것은 그것이 단지 '가정'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행사한다는 점뿐이다. 그로 인한 사회 불개입 논리 때문에 오랫동안 은폐, 지속되었던 것이다. 같은 가정 내 폭력이라 할지라도 아내구타는 아동/노인학대와 다르게 취급된다. 아동 학대는 한 '인간'의 미래를 짓밟는 행동, 노인학대는 미래의 '자신'을 학대하는 것으로 접근한다. 즉, 아동/노인 학대는 피해자 개인의 권리 침해로 이해되지만, 언제나 아내구타는 여성의 인권보다는 가족 해체에 대한 우려가 더 우선 시 된다. 그래서 아동/노인학대는 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이 강조되지만, 아내폭력은 언제나 부부간의 심리적인 문제가 되면서 '비바람은 집안에 들어가도 법은 집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논리가 강조된다.

가해 남성들을 상담하다보면, 대부분이 가정폭력을 아내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남편의 권리 심지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 남편들은 아내가 아내 노릇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때려서라도 남편을 가르치'는' 아내를 별로 없다. 가정폭력은 아내가 '맞을 것'을 제공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의 도리에서 벗어날 때 발생한다. 가정에서 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현실은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규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당화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아내/남편의 성 역할 수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 성차

(性差)에 따른 자연스런 분업이 아니라 폭력에 의존해 유지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임을 보여준다. 결국 '아내폭력'은 부부관계의 극단적, 일탈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가족 내 남편/아내의 성 역할 규범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건으로 현재의 가족 구조 그 자체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내구타를 둘러싸고 여성의 권리가 가족의 유지와 상황 자체가 현재의 가족이 여성에게 억압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갈등하는

이제까지의 접근법과 달리 아내폭력을 여성의 인권으로 중심으로 생각하면 피해 여성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내구타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 아니다. 아내구타는 심각성과 관련 없이 그 자체로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아내구타에 사회의 중재,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폭력이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폭력이 여성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말살하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피해 여성이 피해 여성에게 주는 편지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제 생일이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난밤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지요
그리고 그는 잔인한 말들을 많이 해서 제 가슴을 아주 아프게 했어요 그가 미안해 하는 것도, 말한 그대로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도 전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요 지난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악몽 같았어요 정말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지요 온몸이 아프고 멍 투성이가 되어 아침에 깼어요
그가 틀림없이 미안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날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지난밤 그는 저를 또 두드려 찼지요
그런데 그전의 어떤 때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제가 그를 떠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죠? 돈은 어떻게 하구요?
저는 그가 무서운데 떠나기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제 장례식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지요
저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제가 좀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무서운 기억

시나

가정 폭력을 눈앞에서 본 적은 없었다. 아니, 얼마전까지만해도 그렇게 생각했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자상하고, 애처가인데다가, 딸자식들에게도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편이니. 어쨌든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아내 폭력과 아동 학대는 나와 가까운 엄마의 언니네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지만, 난 그 폭력이 바로 내 옆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리라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의 기억이 떠오른다. 엄마와 아빠의 말다툼 끝에, 아빠가 다리미를 던졌던 아홉 살때의 기억. 너무나 무서워서 엉엉 울면서 어른들을 부르러 옆집으로 달려갔던 그날, 아빠는 물론 엄마를 때리지 못했다. 그러나 충분히 '무/서/웠/다'. 화는 나는데 차마 엄마를 때리지 못하니 다리미를 던졌던거겠지. 다리미에 '엄마에 대한 화'를 낸거겠지. 혹시 모르지, 조금 더 화가 났더라면, 어느 것에 화풀이를 했을진. 어쩌면 그게 엄마나 나였을지도. 그래, 사실 나역시 아내 폭력의 현장에 있었구나. 아내 폭력이란게 특별한 누군가가 저지르는 게 아니었어. 죽도록 때려서 천치 10주의 진단서를 떼와야만 아내 폭력이 성립되는 게 아니지.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충분히 여성들에게 위협적이었을거야. 그런데 어째서 나는 아내 폭력의 현장에서 그것을 '둘의 싸움' 이라고 생각했을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어린 마음에 엄마아빠는 정말 평등하다고 착각했던거인지도 모르지. 그런데, 사랑 싸움에서 서로 화내는 방식이 다른 것 뿐이었다고 생각하기엔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어찌 되었든 아빠의 던지는 행동 자체가 엄마에게 위협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 일은 나 뿐 아니라 엄마에게도 '무서운' 기억이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빠가 비싼 무선 다리미를 사왔다해서 무마될 문제였다면 내 기억속에 남을 일도 없었겠지.

광고패러디 - '문화일보'편



훔쳐보기 싫다.
색깔밖에 없는 신문
-마초친구 문화일보-

문화일보는 지난 두 편의 CF를 모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데에 성공(?)하면서 진정한 마초친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_-

첫 번째 CF. 짧은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문화일보를 작게 접어서 치마 위에 올려놓는다. 그 신문이 치마를 다 가려버리자 그 여성은 마치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옆에서 남자가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카피가 나온다. "훔쳐보고 싶다 / 색깔있는 신문 / 문.화.일.보"

두 번째 CF. 한 젊은 여성이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다. 펼쳐진 신문에 가려진 그녀는 마치 벗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뒤에서 움푹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한 아저씨. 1탄 때와 똑같은 카피가 나온다. "훔쳐보고 싶다 / 색깔있는 신문 / 문.화.일.보"

훔쳐보고 싶은 것은 신문일까? 아니면 그녀일까? 그리고 색깔이 있다는 건 개성이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색(色)이 넘친다는 뜻일까? 그들은 마치 신문을 선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묘하(사실 그다지 교묘하지도 않다.) 여성을 대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CF패러디는 바로 이렇다. 지하철 안에서 한 남자가 옆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리를 펴고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여성은 눈을 흘기며 고개를 돌려버리고, 아래에는 카피가 이렇게 적혀있다. "훔쳐보기 싫다 / 색깔밖에 없는 신문 / 마초친구 문.화.일.보"

우 '비혼' 여성으로 살아가기

by 비

1.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어머니처럼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슬프게 수술자국을 그려놓고 싶지 않았고,

내 아이에게 '그'의 이름을 주고 싶지 않았으며,

내가 아는 그녀처럼, 아픈 어머니 대신에,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 곁에서 파리하게 울고 싶지 않았다. 술에 취한 서방놈에게 내 몸을 양도하고 싶지 않고, 나는 제사음식도 만들 줄 모르며, '아이들'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희생을 강요받고 싶지도 않았다.

더불어 가족주의도, 제도화된 이성애도 제기랄, 사절, 이다.

우리는 '비혼(非婚)'이라 말한다. 여성의 고유한 경험, 우리의 불온한 역사를 주해하기 위한 언어가 만들어져 약진하였으니 여기,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한글 97 프로그램에서 저 '비혼'이라는 단어에 맞춤법 교정을 지시하며, 주홍빛 밑줄을 죽죽 그어댄다. 제법 상징적이다(헛!). 우리는 '미혼(未婚)' - '아직' 결혼하지 않음 - 이라 일컬어진다. 우리의 언어가 유통되어지기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흐르겠지만, '여성'을 누락하고, 고의로 하여 삭제하는 남성적 언어경제에 편재되어 그러나 나, 상냥하게 말하지는 않을 것.

2.

"O△야, 너 맞선 한 번 볼래? XX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호주로 유학가는 남잔데 말야..."

아버지로부터 처음 맞선 제의를 받은 것은 갓 대학 4학년이 되던 해였다.

- "나는 결혼 안할겁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야유와 회유가 쏟아진다.

- "웃기고 있네, 꼭 저런 것들이 보면 제일 먼저..."

- "너, 우리나라에서 결혼 안하고,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나 하니? 사회적인 불이익도 얼마나 많은데..."

- "인생의 통과의례란다. 살면서 꼭 한번은 해야지, 그래야 너같이 '이쁜(이에 미루어 이 대사는 아마도 엄마:)') 딸도 낳고..."

3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엄마의 후배, 직장인 남성 동료들은 그녀가 '췌쳐녀'인지의 여부를 두고, 배팅을 해가며 내기에 열을 올린다 하고, 하여 그들을 인용하자면 '쓸데없이 눈만 높아 혼기를 놓친' 그녀,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가지고, 연로하신 친부모를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짐짓 하루하루가 죄인이다. 사

정이 이러하니 본인의 의지나 개인적인 맥락과는 무관하게 '미' 혼 여성들은 미루어, 어딘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에 틀림없는 인간들일 터.

결혼은 '규범'이다. 따라서 그것의 위반은 단죄를 동반한다. "그렇지, 요즘은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 뭐" 제법 너그러운 제스처어로, 그러나 늘어나는 비혼여성들의 추세를 사회' 문제'로 들이대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면 또 누구의 언설이었는가?

왜 이를 '문제화' 하는가?

몇 해 전, 앉혀두고 한참 결혼타령을 하던 한 남자 선배는,

"마누라가 있으면 옷도 다릴 필요없고, 우리 엄마 대신 밥도 차려주고, 얼마나 편리할까?" 하더니만, 이내 "야,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와이프가 끓여주는 따뜻한 된장국을 먹는 거, 너 이게 모든 남자들의 꿈이란 거 아냐?"

얼씨구, 차라리 솔직하게 알절만 하시지, 이 남자, 신화는 왜 만드시나?

아마도 내 고운 손에 물 한방울 안 묻히시려니.

물질문명 운운하며, 사회가 자꾸자꾸 고독해지자 그들은 저 절대적인 안식의 배후로 가족(여성)을 지목한다. 그것은 자연화된 영역이며, 따라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것.

3.

가족주의를 넘어서며, 비혼 여성으로 살겠다 맹약한 여성들은 이제, '대안' 가족을 고민한다. 하면, 결혼제도를 통해서가 아닌, 자유롭게 공명하는 경험을 꿈꾸며,

나를 지지해주는, 내가 지지하는 이들이 아마도 나의 가족.

아내폭력¹⁰⁾의 현실, 과연 '맞을 짓'이란 존재하는가?

소콜라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내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과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던 아내폭력의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도 언론의 보도 자세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일상적인 한국사회의 현실을 여과 없이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실망감을 안겨준다.

최근에 일어난 두 건의 아내폭력 현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는 일괄되게 폭력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여 남편의 폭력을 정당화시키거나, '남편의 폭력에는 원인이 있다(=결국 맞을 짓을 한 아내의 잘못이다!!!)'는 가부장적인 통념을 그대로 수용해 피해자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사실을 가십거리로 전락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현실 속에서 아내폭력의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가 폭력의 경험을 밝히더라도 비난의 화살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물론 아내폭력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많은 이화인은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아내폭력'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지도 모른다. 여기에 여성위원회가 이번 페미니즘 문화제를 통하여 아내폭력의 문제를 이화의 공간 안으로 끌어내려는 목적이 있다.

이화의 금혼제 폐지 이후, '결혼'은 더 이상 이화인들과 분리하여 사고 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학내에서 결혼에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담론의 생성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아내폭력은 어떠한 사회현실을 매개삼아 자행되는 것일까? 이화인들이 무엇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일까? 우리는 더 이상 아내폭력의 피해자들을 우리 각자의 경험에서 타자화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아내폭력'을 명백한 <폭력>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한국 사회의 '가족중심성/남성중심성'

얼마 전 TV에서 방영된 가정폭력 추방 공익광고는 가정 폭력에 대한 한국사회의 접근방식을 잘 보여준다.

주

10)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대신에 '아내폭력'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한다. 물론 '아내폭력'이라는 단어를 씬으로 해서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념도 명백해질 뿐 아니라, 기존에 '가정폭력'의 한 종류로 개념화되던 '아내폭력'을 강간, 성매매, 모욕, 음행죄 등과 함께 '성폭력'의 한 범주로 분류하려는 시각을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p8)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청학진, 또 하나의 문화

이 광고는 폭력가정에서 자란 남녀 어린이가 폭력 부부의 성 역할을 그대로 학습한다는 내용으로, 남편의 폭력이 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광고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가정 폭력 피해는 남편에게 직접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아니라 "부부싸움"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어린이였다.11)

위의 상징적인 광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아내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은 지극히 가부장적이며 가족 중심적이다. '아내폭력'이 이야기 될 때,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지점은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시킬 수 있나'의 문제인 것이다.

'가족은 운명공동체', '부부는 일심동체' 등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가족(아빠+엄마+a)이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통념은 너무나도 강해져서 그 외의 다른 형태의 공동체는 존재하여서는 안되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이러한 가족중심 이데올로기는 실로 많은 문제를 발생한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내폭력'의 문제 역시도 가족의 보존논리에 따라 그 담론이 '개인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가정파괴에 초점이 맞춰지고, 혹은 일부 '일탈' 행위로만 간주되어 그 본질이 희석된다.

하지만 엄청난 폭력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할 그 '가족'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가족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무조건적인 가부장적 가족의 유지를 주장하기에는 모순적인 가족제도가 약자에게 가하는 억압이 너무 크다. 이제는 기존의 관념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모색을 위한 고민이 절실한 때이다.

폭력의 자행은 남편의 권리, 무조건적 수용은 아내의 의무?

가정 안에서의 성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당신이 소위 '정상적(XY+XX+...)'으로 간주되는 가족구조 안에서 살고 있다면, 더욱더 당신이 그 집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당신은 당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남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억압을 받거나 일정한 역할 수행을 강요받고 있지는 않나?12)

억압적인 가족제도는 가족 내에서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고 철저하게 여성을 피부양자, 피억압자의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

남성과 여성 개개인의 결혼을 통한 결합은 각자의 지위를 남편과 아내로 환원시켜,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남편에게는 경제적인 역할을, 여성에게는 집을 지키는(?집에 감금당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문제는 이러한 젠더화된 역할 체계 그 자체가 집 '안과 밖'으로 여성을 억압한다는 점이다.

'아내폭력'도 이러한 위계적인 부부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자주 인용되는 예로, 러시아에는 "아내와 북어는 사흘에 한번씩 패야 한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느 정도(오늘날까지도 유효하게) 통용되고 있다. 실제로, 상담소 등에 접수된 아내폭력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피해여성을 남편이기에 자신들이 가지는 '권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13) 그들은 자신들이 '폭력'을 행했다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주

11) 청학진(2001)『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p.17 또 하나의 문화

12)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가 없군...

많다. 아내폭력은 전 사회에 걸쳐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가해자들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이다. 문제는 오랜 세월이 걸쳐 아내폭력이 너무나도 정당하게 '남편의 역할'로 간주되어왔다는 사실이다. 남편은 폭력행사를 통해 자신의 가족 내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신을 향한 폭력에 어느정도 순응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가부장제 사회 내의 여러 문화적 기제에서 나타난다. 폭력은 가시적인 사실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규범이나 제도에서 나타나며, 그러한 현상들이 또 다시 구성원에게 체화되어 일상화되기 때문이다. '아내폭력'의 경우 피해자들이 명백한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한 행위를 '폭력'으로 간주하지 않는 많은 경우들이 이를 입증한다.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정하려들지 않는다. 때때로,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다른 여성의 피해사실과 비교하면 '별거 아닌 것'이 되기도 한다. 또한 여성의 피해사실은 가족의 보존을 위해서 밝혀서는 안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사소화된다.

다른 경우, 여성은 스스로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았다고 자위하기도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성 역할을 터득해온 방식을 볼 때, 피해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쉽다.

진실은 무엇일까- 아내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자!

폭력남편에 대한 고정관념들

아내폭력의 가해자는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 절대 그렇지 않다. 가해자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아내폭력은 남녀간의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의 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폭력남편은 성격파탄자이다/정신병자이다

→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피해 여성들 중에는 남편을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 판단력이 빠르고 머리가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폭력은 그 가해자가 정신병자이거나 성격파탄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부장적 한국사회에서 남편의 역할수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즉, 남편이 아내에게 가지는 권력에 기반하여-발생한다.

피해여성을 향한 편견들

피해자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 무탈 할 필요도 없다. 도대체 아내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제대로'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말이다!

피해자는 '맞을 짓'을 하기 때문에 맞는 것이다

주

13)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남편으로서, 가정으로서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 '방탕하고 말대꾸하는, 모범적이지 않은' 아내를 교육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맞을 짓?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별 짓 다한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다.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남편이 아내를 '정당하게' 때릴 수 있을까. 정답은 '없다'!!!!

피해아내는 직업이 없거나 남편보다 경제적 능력이 떨어진다

→ 그렇지 않다. 피해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

아내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폭력은 아내를 교육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 아악. 언급할 가치도 없다. 누가 누구를 교육시켜..)_(<

폭력은 남성적 본능의 분출 행위이다

→ 남성적 본능?(우웻, 토나온다..) π-π

부부사이에 강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강간이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를 포괄하는 말이다. 물론 삽입이 기준이 되는 용어는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부부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히려 많은 경우 부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성관계를 맺는 것이 묵인되고 있지는 않은가!

'폭력'이 아니라 조금 격렬한 방식의 로맨스이다

→ 폭력이 로맨스라고? 당신은 맞는 것이 로맨틱한가? 당신이 아니면 그녀들도 아니다.

폭력의 피해자는 아내가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이다

→ 그렇지 않다.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이다. 만약 당신이 가족이나,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 역시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다.

아내폭력은 '집안일'이다

→ '집안일' 또는 '사적인 일'이라고 규정된 그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 과연 '폭력성을 동반한' 사적인 일이 존재할 수 있는가?

여태까지의 사례들은 흔한 아내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과연 이러한 것들은 누구의 시선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가정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당연하다고 생각되는가? 주위를 둘러보자. 아내폭력은 절대로 '특수한' 경우 일어나는 기괴한 일이 아니다. 가족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한국 사회의 구조가 아내폭력을 얼마나 간과하고 도외시하는지 잊어버리지 말자.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되는가? 아직도 한국사회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다분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다. 아내폭력의 문제는 '그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문제,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이다.

광고패러디 - '결혼정보회사' 편



나를 더 사랑하는 여자가 될 겁니다

-반짝

〈나를 더 사랑하는 여자가 될 겁니다〉

우연히 지하철에서 본 '결혼정보회사'의 광고 카피이다. '파마머리' 대신 '생머리'를, '늦잠' 대신 '새벽조깅' 선택하는 이유는 '좀 더 나은 결혼상대'를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것이 '나'를 더욱 사랑하는 여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길고 긴 여러 개의 '나를 사랑하는' 항목들은 여성들의 주체적 바람이 아닌 남성들이 바라는 여성성의 이미지이다. '잡지' 대신 '시집'을, '재즈' 대신 '클래식'을 듣는 것 역시 '정숙하고 이지적이며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자신의 모습을 개조할 것을 종용한다. 여성의 취향과 외양 역시 남성들의 시선에 의해 평가되고 통제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좋은'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화의 금혼학칙 폐지 이후 언론에서 보여준 일련의 왜곡 보도와 일맥상통한다. 여성의 모든 결정은 '결혼'이라는 억압적 화두를 전제하지 않고 서는 이야기되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그것이 '나를 더 사랑하는' 길이라니. 이 회사의 다음 광고는 결혼정보회사의 지향점을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친구'는 바로 이 결혼정보회사이다. 철저하게 규격화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배우자감'이며 나는 또 어느 정도 '수준'의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나'

보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나'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자신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제공하는 '결혼정보'에 의해 나를 개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광고는 이보다 현대 '결혼시장'의 특성을 상징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현실적'이다. 이는 같은 회사의 또 다른 광고에서도 드러난다.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실제 결혼정보회사의 '자격기준'을 보면 남성은 직업이나 재산등의 '능력'에 여성은 '외모'에 절대적 비중이 있다. 한 결혼정보회사의 경우 '노블레스 회원'을 따로 정하고 여성의 경우 '신장 160이하'의 경우 자격미달 처리하게 된다. 여기서도 남성의 '자격'이 직업 등인데 비해 여성은 '부모님의 직업과 재산' 및 '외모'가 절대적 '자격'으로 명시되어 있다. '성공한 남성'이 누릴 수 있는 '상징'으로의 여성이미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아직도 여성에게 있어 '결혼'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의 '대전제'로 강요된다. 매체와 기업은 그것을 이용해 여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없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는 여성을 남성들의 판타지 안에 가두고 세상의 '질서' 안으로 편입할 것을 강요한다. 그것이 진정 자신을 '더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퍼포먼스 1. 어제밤에 우리 아빠가

(3.26 AM10:40 문화관)

토마

TV 스크린 안에 아빠와 딸이 등장한다. 아빠는 무릎 위에 딸을 앉히고 볼에 내밀며 키스를 조른다. 딸은 '어제밤에 우리 아빠가'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아빠의 얼굴을 그리고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한다. 연기가 진행되는 동시에 TV모형을 들고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른다.

어제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쇠몽둥이를 찾아들고 오셨어요 음음
학교에선 좋은 교수님 교회에선 선한 장로님
시민단체 진보 간사님 우리아빠 정말 멋있죠?
밤새 들려오는 엄마 비명 소리에 잠을 설쳤고
말리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울기만 했죠 음음

퍼포먼스 2. 아빠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3.26 PM1:40 문화관)

소복을 입고 쇠사슬을 감은 신부가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온다. 아빠가 딸 몸의 자물쇠를 풀자 신랑은 신부에게 더 커다란 자물쇠를 채워놓는다. 주제는 남편의 권리와 아내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이고 결혼식장은 코란과 성경, 불교경전 등의 성 차별적인 역할 분담이 이곳저곳 적혀져 있다. 신부는 귀마개를 쓰고 모든 결혼 과정에 참여(?)한다.

남성 고객은 5만원 이대생은 무료

토마

우리 학교 주변에는 웨딩드레스숍이 많다. 특히 전철역 주변의 대로로 끼고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줄지어 서있다. 수많은 신부와 신랑들이 이화여자대학교 앞으로 모여든다. 가게의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된다.

금혼제 폐지 이후, 각종 언론매체는 이화인이 결혼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 말한다. 심지어 이화인 몇몇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이렇 줄 알았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결혼정보업체 회사인 듀오는 '이대생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같은 업종인 선우는 '57년만의 나들이'란 제목으로 이대생들을 미팅 행사에 초청한다. 선우는 "어떤 상업적인 이유도 없으며 이대생의 여성스러움과 명문대생으로서의 당당함에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화인에 대한 '잘 나가는 신부감'이라는 이해를 재확인시켜주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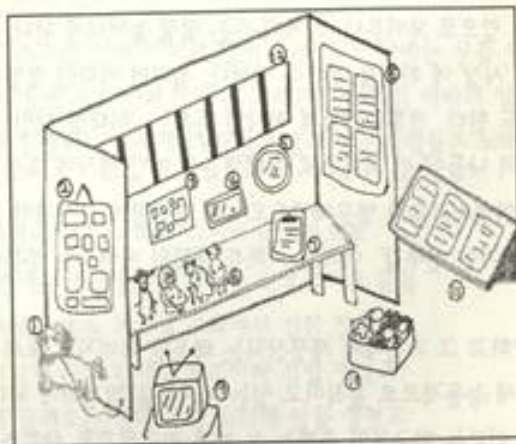
이렇듯 이화는 결혼과 관련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당하고 그 과정에서 재생산되는 왜곡된 이미지로 또다시 폭력을 경험한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안에서 어느새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화인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나와 내 친구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이대생'이라는 허구적인 존재는 늘 매우 적극적으로 사치스럽고 이기적이며 남자만 밝히는 행동을 보여준다. 그 모습은 너무도 자발적이어서 심지어 이화인조차 나와 내 친구는 아니지만 이화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궁금하다. '57년만의 나들이'에 주체가 되는 이대생은 도대체 누구일까. 남자가 없어 감옥에 갇힌 듯 재미없고 답답한 이화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걸까. 57년 만에 울타리에서 해방되어 배우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야 할 이화인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

이화인으로 살다보면 결혼정보업체 선우의 <남자 고객은 5만원 이대생은 무료>라는 광고카피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화인은 남자의 파트너가 되는 존재의 대명사이자 선호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분명 이화인의 선택이 아닌 남성들의 시선에 불과하지만 '이대생'이라는 고유명사는 고정된 이미지 안에서의 능동성을 표현한다.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맞춤형처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지만 결국 자발적인 주체로 임해지는 존재는 그녀들인 것이다. 전화방/텔레방에서 볼 수 있는 <남성 전용, 여자는 무료>라는 간판과 저 광고카피에서 성폭력의 논리는 다르지 않다.

3월 27일(목) 셋째 날 I'm not that kind of girl?

♥ 언니들의 방: 문화란 준비



1. 성폭력과 죽음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는 곳, 많은 언니들이 집에서 개를 키웁니다.
2. 우리들의 주변에 만집 걸려 만집 있는 성매매 업소 사진(1)
- 3~5. 성매매 업소의 구인광고
6. 자점도 인명들
*미임이라는 '성적자기결정권'조차 갖지 못하는 성매매 피해여성
*어제 본 드라마 속의 성매매피해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7. 월수입 500~800보장? - 모주의 장부 속에 늘어만 가는 빚
8. 우리들의 주변에 만집 걸려 만집 있는 성매매 업소 사진(2)
9. 다큐 '이방의 여인들' 상영
10. 언니들의 방에 산디미저점 참여있는 악들
11. 새움터 강연글

♥영화 <Calling the ghosts> 상영: 12시

♥영화 <제비꽃 향기 - 아무도 믿지 않는다> 상영: 1시/오후 2시

♥영화 <현장단체 '새움터' 간사님의 강연: 학관 108호/오후 5시

I'm not that kind of girl?

반짝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에게 '성매매 여성과 이화인은 그다지 상관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럴 지도 모르겠습니다. 매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이화인에게 '남의 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성매매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매매생존여성'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저 자신도 알지 못하던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성매매 여성들은 낯선하고 예뻐서'이라는 지독한 편견에 빠진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낯선하지'도 우리 사회 '미의 기준'으로 볼 때 '예쁘지'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원칙적으로 불법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오늘도 버젓이 네온싸인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매매의 천국'으로 불려도 좋을 우리나라에서 실제 성매매 현장에 대한 진실은 은폐되곤 합니다. 언론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사치스럽기 때문에 쉽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 업소로 유입된다는 식의 '가짜 진실'을 '추적'합니다. 가끔은 이 나라의 '성윤리'를 개탄하기 위한 예시로 사용되거나 '반미정서'를 위해 '이용'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진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의 현실'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지도 인정하고 싶어하지도 않는 암묵적 영역입니다. 단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이번 문화제에서 기획한 '언니들의 방'은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이 '집착과는 다른' 상황임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니다. 그것은 성매매 여성들이 집집마다 개를 키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사 안 가득한 악들은 무엇의 결과인지, 정말 우리는 성매매 여성과 아무 관련이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동등한 여성도 있습니다. 나이 든 여성도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도 있으며 아이들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현실에 대한 물이해는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언니들의 방'에 전시될 성매매 관련 법조항들은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의 성매매 여성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움터의 강연을 기획하고 활동가의 글을 청탁한 것은 성매매 여성들과 이화인은 분명 '다르지만 함께 바라야하는' 것들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 성매매 여성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성매매의 대상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I'm not that kind of girl'이라고 눈을 감기에는 그것이 재생산하는 폭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성이 성적 대상화되고 섹슈얼리티가 매매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입을 열고 말하지 않는다면 성매매의 폭력은 여전히 우리의 편견 밖으로 나와 인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끝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백화점 앞 노천에서 커피를 마시던 저는 한 아저씨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나'와 '성매매 여성'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화인들과 '함께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화인'들과 '나'는 다르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의 현실과 해결 방안¹⁴⁾

새움터 직업재활센터장 김성희

1. 서론

군산에서 일어난 두 번의 끔찍한 화재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 실태 및 해결 방안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 문제에 접근할 때 중요한 것은,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여성을 구조하고 이러한 학대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의 상황에 놓여있지만, 한국 사회의 사회적 인식과 법률 제도는 성매매피해여성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매매피해 여성 각자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1. 성매매의 현실

1) 성매매 개요

"작년에 순천의 직업소개소에서 임○○를 우연히 만났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거기에서 대전 윤락가로 소개비 300만원에 넘겨졌고 현미도 소개비 몇 백에 다른 윤락가로 넘겨졌어요. 저는 그 윤락가에서 도망쳐서 지금 어머니 집에 숨어 있습니다. 현미도 저처럼 도망쳤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텐데..." (임○○의 친구)

성매매 범죄 조직이 주로 노리는 대상은 10대의 가출 청소년들이다. 이러한 범죄 조직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길거리나 유흥업소에서 유인하기도 하고, 광고를 통해 유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광고들은 기차역이나 터미널의 화장실,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장소,

주

14) 군산 화재참사를 통해 본 성매매 해결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 글 중 발제 새움터 대표 김현선, 2000년 10월 18일 발표

일간지, 주간지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유인된 후에는 대부분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하여 폭력을 이용한 협박이 이루어진다. 성폭행을 포함한 이러한 폭력은 인신매매 전에 여성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인신매매의 과정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은 소개비를 주고받는다. 여성들의 나이에 따라서 소개비의 액수는 달라진다. 20대 이상의 여성들은 한 번 업소를 옮길 때마다 보통 300만원 정도의 소개비가 책정되며, 20대 이하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소개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소개비는 여성들의 빚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가 두세 번 이루어지면 금새 여성들의 빚은 1,000만원이 넘어선다.

2) 빚과 폭력

"5월 남은 빚 11,969,000원" (임○○의 일기장에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에서 희생당한 여성들은 대부분 1,000만원 이상의 빚을 포주에게 지고 있었다. 이 여성들은 성매매업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열심히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빚을 갚고 업소를 빠져 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빚에 대한 높은 이자, 매달 70만원의 방세, 식대 30만원, 이불 값 40만원, 흠에서 입는 옷값 50만원 등, 이 여성들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화대를 포주에게 갈취 당하고 있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업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이 업주에게 지고 있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의 빚이다. 이 빚의 대부분은 직업소개소에서 성매매업소로 여성들을 소개하는 과정과 업소간에 여성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소개비의 명목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낙태비용, 의료비, 티켓비(일을 할 수 없는 날 내는 벌금) 등의 명목으로 발생한다. 이들 모두 성매매와 연관한 불법적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빚을 갚지 않는 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업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외에도 포주들은 가족들에게 알리고 폭력을 휘두르겠다는지, 끝까지 찾아내서 섬이나 오지에 팔아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통해,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 감금

"하루빨리 자유라는 걸 되찾고 싶어. 혼자서 목욕탕 가고 슈퍼가고 커피숍 가서 창가에 앉아 사람들 구경하고..." (임○○씨의 일기장에서)

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다. 집결지에서는 포주의 감시를 받으며 여러 명의 여성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여성들은 목욕탕을 가거나, 보건소에서

성병진료를 받거나, 옷을 사러 가기 위해 모처럼 외출한 성매매여성들이다. 잠을 자는 시간에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4) 성매매 조직과 경찰, 공무원 등 공권력과의 유착 관계

2000년, 9월 25일 경찰이 미아리 텍사스의 성매매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조직적인 상납을 받아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직적인 상납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지만, 그 동안 성매매업소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일들은 수없이 많았다. 최근의 예로서 지난 9월 대구의 성매매업소에서 도망친 여성들은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포주를 불러서 대질하면서 여성들에게 빚에 대한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이 도망을 칠 경우, 포주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포주와 폭력배를 대신해서 그 여성의 신원을 조사하고 찾아준다. 2000년 대명동 군산 사건의 희생자인 김○○의 아버지 진술에 의하면, 1년 전에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업주가 빚 때문에 진정을 했다고 김○○를 찾았다고 한다. 그 때는 그런 빚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처하지도 못했고, 형사들에게는 '돈이 없어서 빚을 갚을 수가 없다' 라고 말했다 한다. 경찰이 포주를 대신해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찾아내고 포주에게 인제하는 것이 현재 한국 경찰의 모습이다. 이것은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 부족, 그리고 성매매업소와의 유착 관계가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5) 법과 제도의 문제점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성매매피해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여성에 대한 학대 행위를 오히려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은 포주나 남자손님으로부터 인권 침해나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할 수가 없다. 신고할 경우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처벌받기 때문이다. 즉 성매매피해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매매피해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낙인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최근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대한 일제 단속을 통해 많은 미성년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업소에서 벗어나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가족에게 적응하기 어려워서 다시 가출을 하고 성매매업소로 돌아갔으며, 심지어 부모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면 서 자살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6) 미성년 성매매

1999년 12월, 경찰청은 미성년 윤락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그 이후 경찰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미성년자들을 고용하는 성매매업소의 업주를 처벌하고 여성들을 구조하였으며, 성매매업소 집결지 중심으로 성매매 업소들을 단속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의 지지속에 여러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업소에서 구조하는 활동 외에 구체적인 실질적인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성매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교육,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대안 마련, 획일화되고 억압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기형적 자본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성년 성매매만을 단속하는 것은 성인 여성의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귀가조치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피해여성의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2002년 2월 16 일에는 단속에 걸려 귀가조치되었던 2명의 미성년 여성이 투신자살하였고(2002년 3월 12일, 한겨레신문), 4월 2일에는 2명의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세상살이를 비관하며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4월2일 한겨레신문). 그들이 남긴 유서에는 "내가 저지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간다. 부모님 볼 면목이 없다", "아버지의 악값을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등의 글이 남겨져 있었다.

단속 이후에 단순 귀가조치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 여성들이 곧바로 가족으로 돌아갔을 때, 이 여성들과 가족들이 서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들은 경찰과의 접촉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며, 가족들에 의한 낙인은 이 여성들이 가족에게 재적응하는 것을 무척 어렵게 만든다. 또한 현재의 요보호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면 자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들을 받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업주나 폭력배 등의 착취와 폭력, 성폭행, 살인 등과 같은 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피해를 당해도 일부 살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신고조차 되지 않는다. 이는 신고할 경우 자신이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강하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은 경찰이 업주의 편이라고 불신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미군범죄도 매우 심각하다. 매년 살인 사건을 비롯한 많은 미군범죄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 대안

성매매피해여성이 처한 열악한 현실의 문제는 결코 피해여성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관련 법규, 정부 정책, 공권력과 성매매조직의 유착, 이중적인 성적 규범의 문제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게다가 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탈성매매를 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피해여성을 사회구조적 모순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적,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대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다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1)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마련한 "성매매알선등범죄의 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청원되었다.

여성연합의 법률안은 정부가 체결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유지 및 다양한 성매매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벌강화, 청소년과 외국인, 장애인 등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규정,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몰수, 내부고발자 형사처벌 특례 및 보상금,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원,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국제적성매매방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명시 등이다. 성매매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해 실효성있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피해자 규정
- 나.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현실적인 사회복지적 지원책 마련
- 다. 성 판매자, 중간 매개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라. 성 구매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집행 또는 강제적 교육 프로그램 실시
- 마. 외국인 여성을 포함한 포괄적 법률 적용

그러나, 현재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법안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이루지 못한 점과 관련해서 최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며, 이러한 비판이 더욱 늘어나고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완전비범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는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완전비범죄화의 내용이 법에 명시될 수 있는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2) 성매매업소와 관련 공무원들의 유착고리 끊기

아무리 법률을 개정한다고 해도, 법률 집행을 하는 기관이 범죄자들과 유착 관계가 있다면, 법률의 실효성은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업소와 경찰의 유착 관계는 그 뿌리가 깊으며, 이미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성매매업소와 관련 공무원들의 유착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 침해 상황의 개선

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역 사회에서 집결지의 포주들은 막대한 권력을 누린다. 이들은 지역 유지로 대접받고 있으며, 어떤 포주는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지역의 중요한 기관장을 맡기도 한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정치자금'을 운운하며 자신의 권력을 자랑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포주와 지자체의 유착 관계에 대한 강한 의혹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

3)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지원활동

사 업 내 용	프 로 그 램
경제적 지원	생계비 지원, 공동작업장 취업
주거시설 지원	쉼터, 그룹홈, 공동주택
직업알선 서비스	기술교육, 취업정보제공
상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개인상담, 지지집단, 치료집단
의료서비스	의료보호제도, 무료 진찰 서비스, 의료비 지원
포주로부터 보호	일시보호, 단기보호, 장기보호, 빗 문제 해결, 법률서비스

쉼터

성매매업소로부터 도망친 성매매피해여성들이나 경찰의 단속에 의해 성매매업소에서 빠져나온 여성들을 위한 피난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이 피난처에서 일시 보호나 단기 보호를 받으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쉼터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법률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빗의 굴레와 성매매업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소가 필요하다.

성매매와 관련한 건강과 질병 상담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병 검진은 소수의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제적인 검진에 대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거부감도 강하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성병이나 에이즈에 대하여 자유롭게 상담하고 검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담소가 필요하다

현장지원 서비스

감금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은 피난처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정보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지원이 필요하다. 진로 차량 등을 이용한 정기적인 방문 치료와 탈성매매를 위한 상담 등은 현장지원 사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기술교육 및 창업지원

성매매피해여성의 대부분이 10대에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직업을 위한 기술을 거의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이며 다양해야 한다. 따라서 몇 명의 여성들을 그룹으로 묶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음식점 등과 같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성매매피해여성 자녀들에 대한 지원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자녀들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빈곤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교육비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최근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기지촌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여성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상황에 놓여있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여성들을 위한 귀환 프로그램 및 피난처 제공,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광고패러디 - '라프베르'편



열꾸베르
라린테글르
랑르글해
마초들

시나

마초가 뭐냐구요? 자, 그럼 우선 뜻부터 짚고 넘어가죠~

macho [ma:ʃo] (미구어) n. (pl. ~s) 남성적인 사람, 힘센 사람

a. 남성적인, 남자다움을 과시하는

다시 말하자면, '남성우월주의에 빠진 것들'을 일컬어 말할때 쓰임 니당~ ^^

다들 시대가 변했다고들 합니다. 심지어는 여성상위시대라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죠. (---) 그리고 정말 변화긴 한 모양이에요. 마초들이 자신의 생존 전략을 바꾸는 걸 보니.

그저 '여자가 무슨~' 하면 모두들 수긍하며 여성들을 구석으로 몰아대던 시대가 지나고, 페미니즘의 한 조각들이 변하고 변해서 결국 유행처럼 퍼져나가 진보적인 인간의 상징처럼 되어버리자 너도 나도 입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지'라고 말해대지요. (그래도 꼭 남성이 앞에 나오디다~) '여자가 무슨~' 하게 되면 무식하고 치졸하고 보수적인 인간이 되니 더 이상 저렇게 막 드러낼 수야 없겠지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놈이 고놈.

남녀 평등한 건 좋지만 페미니즘은 싫다는(페미니즘이 뭔지 생각이 나 해봤는지...), 남녀 평등한데 여대랑, 여학생 휴게실이 왜 필요하냐며 없애자는, 난 진보적이라 집안일을 잘 '돕는다'(집안일은 여전히 자기 일이 아닌갑네요. 돕는다니...)는 놈들이랑 '여자가 무슨~'하는 놈들이랑 대체 다르게 뭘까나...

겉대기 바꾼다고, 속이 달라지나요~ 어차피 마초가 마초인 것들요.

여러분, 마초 조심하세요~~ ---

by 로즈메리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어렵게 다가온다. 2년 전 성매매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어설픈 세미나를 시작했을 때, 나는 성산업의 방대함과 성매매의 폭력적인 현실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이후 새움터 자원 활동을 통해 현장 단체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나는 가끔 머리가 멍해졌다. 그것은 여타 운동 구호 - '성폭력 근절' - 을 외치는 것과 '성매매 근절' 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어렵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성매매 근절' 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보편 타당하게 외칠 수 없는 구호이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두 가지의 정책만으로 해결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이라도 특정 사창가를 윤락행위등 방지법(현재 윤방법은 성을 파는 자와 사는 자 모두를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에 따라 단속하여 성매매업소들을 폐쇄시킨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포주에 의해 다른 곳으로 팔려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또 다른 집결지가 형성될 것이다. 좀더 신중하게 정책을 세워서 그 지역의 성매매를 단속하고 여성들에게 탈매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보자. 지역 행정과 경찰 및 여성단체들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다행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입장에서 다른 노동자처럼 성매매를 법제화하고 근로조건을 강제함으로써 좀더 나은 상황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한, 수많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이다. 엘리슨 재거는 「매매춘에 대한 서구 여성주의 시각들」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남겼다. 특정 맥락에서 성적 대상화가 무해할 수 있는가? '성적인 일' (sex work)이 본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다른 종류의 일과 다른가? 선택이 늘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어떠한 지점에서 사회적 강제는 위협적인 것이 되는가? 말하는 이가 실수하거나 자기 기만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한편 그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억압적이면서 동시에 해방적 측면을 지닌 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양한 성적 활동 속에서 젠더는 어떻게 생산되고 재생산되는가? 어떠한 결정이 사적인 것이고 어떠한 결정이 정치적인 것인가? 무엇보다도 어떤 것이 여성의 종속에 협력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에 저항하는 것인가? 나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어설픈 걱정하고, 고민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언니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 사회 복지적 정책에서 시작하여 인간관계맺음까지.

2003년, 지금 성매매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2000. 9. 19.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 5명의 여성 사망. 2001. 2. 14. 부산시 완월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 4명의 여성 사망. 2002. 1. 29.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 14명의 여성 사망. 이 세 건의 화재로 인해 성매매의 폭력적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다. 사망한 여성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감금에 의한 인제라는 점에서 이 화재사건들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경찰이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누구나 그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며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언론에서는 다루어 보도했다. 포주는 건물을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쪽방으로 나누어 놓고 모든 창문에 두꺼운 쇠창살을 설치하고, 창문은 못으로 박아 열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출입문은 안에서는 열 수 없고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 놓고 감금한 여성들에게 하루에 적게는 4-5명, 많게는 20명 이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화대를 전부 가로채서 착취하였다. 포주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여성들은 폭행을 당했고 도망갔다가 잡혀온 여성들은 섬지역으로 인신매매되었다. 병원에 가거나 목욕탕을 갈 때에도 항상 감시인이 따라다녔다. 성매매 문제는 이제 여성운동 내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물론 이슈화가 된 것은 천만 다행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씁쓸함이 느껴지는 것은 욕심이 많은 탓일까?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죽어서 비로소 성매매 문제가 수면에 떠다는 사실도 씁쓸하지만, "착취/감금=인권유린"과 "김강자 총경의 공창제 논의 및 공창제 찬반"으로 성매매에 대한 논의가 귀결되고 있는 현실이 못내 안타깝다. 물론 성매매가 폭력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기에 - 사람들은 성매매는 정상적인 근로조건에 의해 얼마든지 노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며, 항상 그녀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원조교제' (청소년성매매라는 명명이 맞지만, 일단 맥락상 '원조'로 지칭한다) 및 채팅을 통해 포주 없이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언급한다 - 착취와 감금을 말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면서 삶을 보내는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간과한 채, "성매매가 폭력적이다, 감금과 착취다"라는 명제를 무턱대고 사용해서는 안될 것 같다.

최근에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삼인, 2002)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다. 이 책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성매매에 대한 추상적인 문제들로 논의하던 대부분의 저서들과는 달리 성매매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연구자들이 '나'로서 현장의 여성들을 만난 경험을 기록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들의 경험은 바로 여성들의 현실을 통해 성매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어떠한 제도가, 어떠한 구조가,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이론적으로 평등에 반하며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개인의 몸, 영혼, 심리를 실제로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몸에 남고 마음에 남는 그 여자들의 상흔, '정말 오늘이오늘이 아니길' 바라는 그들의 심정, 그러면서도 어느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웃고 회회덕 거리고 희망을 갖고서 살고 있는 살아있는 구체적인 인간을 통해 성매매의 문제를 사고하기 시작한 저자들의 시도." (www.unninet.co.kr/기획, 특집) 성매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해답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들이다(민가영) 중 발췌함)

서구 여성주의는 1970년대 이후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이 급진적 여성주의와 자유주의적/포스트모던적 여

성주의로 분화되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은 새오토, 한소리회 등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강조하는 현장단체의 담론 및 '매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등의 여성학자들의 주장 - 급진적 여성주의에 근거하면서도, 현장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 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picis(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에서 번역한 책을 통해 '성노동 sex worker'로서 자신을 정체화하는 동남아시아의 몇몇 현장단체들의 입장이 소개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등에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 '성매매는 필요악이므로 공창제를 하자'는 몇몇 학자들의 주장은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성매매를 바라보는 여성주의적 시각 중 어느 하나가 100% 옳다고 강권할 필요는 없겠지만, 특정한 시각을 선택하기 이전에 성매매의 실상과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가지치기 없이 듣는 것은 모든 이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매매의 폭력적 상황에 대해 눈을 감은 채 '성매매는 편찮아'라고 중얼거리는 태도 역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려진, 혹은 오랫동안 주체의 목소리 자체가 삭제된 가운데(그 주체들은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서 운동의 주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담론 속에서만 존재해 온 사회적 문제를 여성주의적으로 고민할 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론)

〈여성적 사고, 지구적 저항〉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에 실린 엠파워(Empower Education Means Protection of women Engaged in Recreation)의 약자, 태국의 성매매노동자 지원단체로 1985년 팟퐁 지역에서의 매매춘과 섹스관광에 대한 프로젝트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지역여성들을 위한 교육 및 생활 지원단체로 변모했다. 현재는 생활지원센터이자 매매춘 여성들의 공동체이다.)에서 활동하는 찬타위파 아파숙의 인터뷰는 내 머리를 또 아프게 했다. 아파숙은 "집에서 이 여성들의 대부분이 음식을 하고 세탁을 하고 가족들을 돌보죠. 많은 경우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집안의 가장이죠"라고 말했다. 아파숙은 성매매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생활형편 때문에, 혹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성산업에 들어서게 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 여성들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다른 여성들과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데에 이바지하는 어떤 것이든지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엠파워의 목표는 성산업 전반에 걸쳐있는 직업상의 위험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성들이 상사나 고객으로 당하는 물리적 위협, 성병, 영양실조, 수면 부족과 빈약한 거주지 등 건강상의 위험, 제시간에 치장을 하지 못하거나 요구되는 횡수만큼 남성들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물게 하거나 단속을 피해 새벽2시를 넘어서까지 일을 시키는 착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엠파워는 성노동자로서 여성들이堂堂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머리가 아팠던 이유는 엠파워가 현장지원 및 생활공동체로 하고 있는 일과 한국의 현장단체들이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성 노동자'라는 담론에 개입하는 수준의 차이 때문이었다. 아마도 이는 한국과 태국의 경제적 차이와 여성들의 지위 때문에 추측된다. 민경자에 따르면, 한국의 매춘여성들의 운동의 경우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자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고객/포주/경찰 등에 대한 저항과 집단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매춘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다. 탈매춘은 매춘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 전제되는 것이고 인권운동은 매춘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이들의 인권을 사회가 보호해야 한

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춘여성 정체성'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매춘 여성운동은 매춘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인권운동의 수준과 남성에 비해 차별 받는 여성으로서의 인권을 주장하는 여성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매춘을 성노동으로 인정하고 매춘여성을 직업노동자로 인정하라는 성노동의 운동으로는 확장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우리 사회 매춘여성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매춘 여성을 낙인찍는 우리 사회 특유의 맥락이 이러한 요구를 원천봉쇄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태국이나 한국에서 성매매피해여성에게 '낙인'을 찍는 데 정도차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엠파워에서 성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춘 여성들의 문제를 '경제적 착취'에 방점을 두고 성산업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이 그나마 환경이 개선된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한편 한국에서 최근에 등장한 성노동자 담론은 남성 좌파적 시각에서 성노동을 어떠한 노동양식으로 규명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장에서 왜 성노동자 담론이 필요하고, 그녀들에게 어떠한 착취가 가해지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한다 - 합법화가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식으로, 합법화가 된다고 해서 외국인여성의 유입이 사라질 리가 없으며 포주가 근절된다는 보장도 없는 데 말이다. 결국 전략적으로 남성 좌파의 성노동담론과 어떻게 경계를 그어야 하는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류 담론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더 나아가 '그럴 만한 여자들'이라는 남성중심적 시각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착취/감금을 이야기하면서 언니들을 피해자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 이 모든 것이 아프게 머리를 때린다. 이제 시작된 질문이라고 위로하면서, 일단 글을 접기로 한다.

아이

유난히 흔들거리는 밤 버스였다.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 그 중 한 명의 어머니가 하시는 노래방으로 놀러가는 중이었다. “우리 이렇게 몰려가도 괜찮은 거니” “괜찮아. 어차피 지금 사람 없어서 우리가 가서 분위기 띄어줘야 해” “주말인데?” “우리 장사 잘 안돼. 술도 안 팔고 도우미 아가씨 아줌마들도 없다고 사람들 안 와” “무슨, 노래방이 단란주점이나” “그런데 정말 그렇다니까. 도우미 없는 노래방 없다는 거야. 가족들하고 놀러오는 단골 아저씨들도 친구들 만나면 다른 데 갈 수 밖에 없다고 도우미 좀 부르라고 해. 우리 어머님 바보 소리 듣잖아. 쟤장”

나는 버스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었다. 나는 더 이상 화려한 백화점 바로 뒤편에 있는 붉은 유리창들의 미로에 놀라지 않는다. 아버지의 포켓에서 나온 룬살롱 영수증도 무심히 구겨버린다. 성매매 세미나를 하던 중이었다. 후배는 먹먹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제 두려워. 내가 참 좋아하는 아빠, 우리 아버지도 성매매를 했을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후배는 혼자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하셨겠지. 그러면, 우리 오빠도 했을까?” 나는 역시 대답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계속 노래방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술 마시고 들어와서 아가씨 찾는 아저씨들, 여기는 안 불러 준다고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야. 도우미 있는게 당연하다는 거지” “나 비디오방 알바하잖아.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여자를 불러다 주는 거 같더라. 그래서 거기 갈 때, 일부러 모자 눌러쓰고 옷도 남동생 옷 꺼내 입고 가잖아. 거기 혼자 오는 남자들이 나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 싫어. 빨리 그만 뒤야지” “다른 알바 자리는 있나” “내 친구는 전화방 알바 했었다는데” “정말? 왜?” “왜긴 왜야. 돈이 없으니까지. 그냥 전화만 받는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무지기분 나를텐데” “겐 그래서 얼마 못했어” “호프집 알바는 아닌 줄 알아. 아저씨들 새벽에 술 좀 들어가면 다 똑같이 취급해” “전철이 끊겨서 집까지 좀 멀리 걸어간 적이 있어.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차 몰고 계속 쫓아왔어. 얼마면 돼냐고 묻더라. 집에 와서 조금 울었어.... 난 긴 치마에 가방도 메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일단은 너가 여자애라는 거야”

버스는 환락가를 지나고 있었다. 창문 가득 펼쳐지는 번뜩이는 네온사인들- 별메이인크림미인30명항시대 기오빠 놀다가요대웅룸클럽비즈니스는이곳에서하세요

차라리 저것이 솔직한 풍경일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모든 거리가 실은 성매매의 거리이다. 트럭이 세워진 고속도로 갓길에서도, 할아버지들이 해바라기하는 공원에서, 한국 남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친구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나는 가벼운 멀미증세가 일었다. 그러나 버스에서 내릴 수는 없었다. 아니, 내린다 한들 어느 거리에선들 구토증세가 일지 않을수 있을까. 아무리 눈을 감는다 해도.

누군가 말했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 이건 인간의 욕망인데 없애려해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창백한 눈으로 말했다. 네, 그러세요. 살인도 없애려 해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인합법 시대 만들어놓고 힘없는 애들 데려다 놓고 마음껏 죽이라 해요. 폭력 충동도 인간의 엄연한 욕망 아니예요?

그는 당혹스러운 듯 말했다. 야, 그거랑 그거랑 다르지. 난 대꾸했다. 그럼요, 다르죠. 살인은 한 인간을 단번에 파괴하는 거지만, 성매매는 한 여성과 그 외 다른 모든 여성을 조금씩 파괴하는 거잖아요. 공리적인 관점에서보면 성매매가 더 나쁘네요.

그는 중얼거리 듯 말했다. 예 앞에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 나는 잔뜩 흐려진 목소리로 웅얼댔다. 응, 나도 너랑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가능하면 만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겠지. 도처에서 만나는게 너이니까.

“왜 그래?” “멀미야” “여기서?” “뒷좌석이잖아. 버스가 흔들리고” “금방 내릴 꺼야. 좀 참아” “야, 너 멀미가 아니라 열 나는 거 같은데” “감기 기운이야” 미열 속에서 나는 보았다. 버스 가득한 거래의 흔적들. 그래, 나는 피해다니고 도망다닌다. 페미니즘 문화제에 줄이 작은 글조차도 두려워한다. 실은, 눈을 감고 귀도 막고 싶은 것이다. 그리하여 마주치는 것은 캄캄한 어둠 속 내 발뒤꿈치를 잡아챌 손목이라라는 것. 나 어찌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도망치고 싶었다. 헛되이 아무렇지 않은 척해보지만, 사실은 바로 내 곁에서 웅성거리고 있을 진실. 나는 언제나 성매매라는 주제를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성매매의 나라. 몇 명의 여자들이 불타 죽은 다음에야 간신히 느끼한 동정론을 섞어 사람들은 말한다. 마치 전혀 다른 세계의 가엾은 난민들을 바라보듯이. 하지만 성매매의 현장은 이미 일상이고 그 범주는 모든 사람들의 옷깃에 머릿속에 자연스레 자리잡고 있다. 성을 소비하는 남자들은 언제쯤이나 자신들이 공범이자 가해자라는걸 자각하게 될까. 그리고 나는 언제쯤 이 문제에 대해 두통없이 떠올리게 될까. 아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 두통은 내 몸도 역시 이 사회에서 여자로 일한다는 것의 증거이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두통을 바로 바라보아야겠지. 고개를 들자, 지금도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을지 모르는 직업소개소의 간판이 아스라이 보였다.

발간멘 - 성매매 관련 법안 뜯어고치기

시나

현존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 할 것임에 비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성매매행위와 알선 행위를 '처벌' 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발의되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법안은 윤방법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띄고 있지요.

이 법은 우선 수사 기관이 조사를 할 때 성매매 행위자로 입건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경우엔 성매매 행위자인 여성을 성매매 '된 자'로 추정하고 '성매매 행위자임을 입증'해야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된 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죠. 지금까지 성매매 피해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우선 추정했던 윤방법에 비해 성매매 피해 여성이 '피해자'라는 것에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피해 여성들이 채무 관계, 그러니까 '빚'으로 인해 성매매의 덫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게다가 '지각비 십만원, 화장품비 백만원, 세평짜리 방세 오십만원' 이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규칙을 정해 빚을 계속 늘려가며 (생각해보세요, 하루 일 못하면 몇십만원 빚을 지는데 여성들은 한달에 한번 몇일 씩 생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여성들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포주들 때문에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현실에 맞춰, 채무 관계를 무효화 할 수도 있구요. 실제로 피해 여성들은 말도 안되는 빚이나 폭력에 의해 성매매의 덫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 말예요.

그리고 특별법으로 윤방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는 중간 업주들과 광고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피해 여성을 실제로 감금하고 돈방석에 앉은 포주들 뿐만 아니라, 역화장실 이곳저곳에 붙어 있는 '월수 300이상, 숙식 제공' 이란 스티커를 만든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실 성을 파는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그들이고, 사는 사람은 남성이라는 거죠. 윤방법에 비해 그 처벌도 더 엄격해졌구요.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몰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나 성매매 피해 여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의 심리 과정을 비공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해 여성이 원한다면 자신을 지지할만한 다른 이와 함께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지요. 실제로 조직 폭력과 깊숙이 연계되어 있고, 심지어 경찰들과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포주들에게서 성매매 피해 여성이 보호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조치죠.

그러나... 아름다운 법이라고 칭송하기엔 아직 이르네요.

윤방법에 비해 훨씬 더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현실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성매매 '된 자' 라고 했던 것 기억하세요?

제8조 제1항을 보면, 성매매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성매매 '된 자'와 성매매 '한 자' 라니...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한 자는 처벌한다'라는 거죠.

이상해..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법률안을 찬찬히 살펴봤더니 성매매 피해 여성을 자발적으로 업소에 들어온 여성과,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온 여성들로 나누고 있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기존에 사회에서 하던 '착한 여자'와 '나쁜 여자'를 나누기. 너무 답았죠? "원래 착한 여잔데 어쩔수없이, 강제로 끌려온 여성은 보호해 줄게. 하지만 자발적으로 찾아온 나쁜 여자들은 안돼~!" 인신매매나 강금, 강간 등으로 인해서 강제로 성을 파는 행위를 했으면 보호해주겠다는 거고, '자발적으로' 업소에 찾아왔으면 처벌하겠대요.

앞에서 했던 얘길 떠올려 보죠. 자신이 어느 누구와 성관계를 어떻게 할지조차 결정할 수 없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하는 게 바로 성매매. 그래서 성폭력.

아니, 성폭력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물론, 실제로 이 법을 통해서 90%가 넘는 여성들은 성매매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성이 일할 수 없는 사회에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성매매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은 걸까요?

이거 사실, 사회에서 유도한 건 아닐까요? 경찰들은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기는커녕 당연하게 모른척하고, 심지어 뇌물까지 받고, 경제 개발 한다면서 관광 상품으로 성매매를 홍보하고, 주기적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이 성병에 걸렸나 안걸렸나 관리까지 해가면서 성산업 보호하고, 여성들은 밖에선 일자리 하나 구하는 게 힘들고, 목구멍은 포도청이니.

자, 이쯤되면 성매매를 '한 자'와 '된 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모두들 성매매의 '피해' 여성인데 말예요.

이 법, 손 좀 봐야겠죠?

광고래리니 - '00700'편

성매매 여성들은 돈벌고 즐기며 할 수 있어서 거기 남
아있었다구요?

허허... 그런 황당한 생각을 갖고 계신 당신이라면, 이 글
을 고독 읽으셔야겠군요.

자, 여기 한 여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녀는 어떠한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혼자 남게 되었죠. 폭력을 휘
두르는 아버지를 피해서, 혹은 자신이 원치 않는 부모의 결
정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자유롭게 싶어서, 혹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자, 어떤 이유에
서인지 몰라도 그녀는 어쨌든 이제 자신을 먹여살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녀가 성인이 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녀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그녀가 일을 구하려면 '보호자'의 도장이 필
요하지요. 즉,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럼 열
에 아홉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겠죠. 기껏해야 햄버
거 가게 정도. (주유소엔 대개 남자애들을 쓰죠.) 그런데
잘 곳이 마땅치 않네요.

하루 이틀이야 친구네서 부비면 되지만, 아~ 막막하죠.
그런데 갑자기 역 화장실에서 눈에 띈 것은? '월수 300
보장, 숙식제공, 초보환영' 이라 쓰여진 스티커. 오호
라...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티켓 다방이에요. 처음엔 몇십
만원 선불도 해주고, 차배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녀.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되었나봐요... 하고 생각한 그
순간.

하루에 몇십잔씩 배달하는 와중에 정해는 시간을 오분,
십분 넘기면 오만원, 십만원씩 주인에게 빚을 지게 되죠.
손님들은 자꾸 잡고, 그래서 빚이 자꾸만 늘어나는데, 열
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녀.

주인의 곱지 않은 눈길을 견디던 어느날 주인이 말하는
군요. "넌 빚이 많으니 2차 뒤에" 2차가 뭘지 모르신다
구요? 성매매를 하려는거죠. 울며 겨자먹기로 그녀는 성
매매에 발을 들여놓게 되지요. 그러나 여전히 늘어가는
빚에 그녀는 결국 다른 곳으로 '팔려' 갑니다. 청량리, 화
양리, 여기 저기...

그런데, 그 빚이 정말 그가 진 빚인걸까요? 그녀가 벌여
다 준 몇백만원에서 한달에 몇백만원을 제하고 나면 오

시나

포주: 또 도망을 갔습니다!

검찰: 그래? 그럼 내가 경찰을 붙여주지.

히려 빚만 남는데...

자, 그녀는 이제 방법이 없음을 알았어요. 감으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단 생각에, 밖에서
지키고 있는 폭력배의 눈을 피해 그는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자 곧 포주가 달려오죠. "경찰에 전화했다며? 니
가 간이 부었구나!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포주와 경찰은 사실 아주아주 친하죠. 너무 친해서 포주는 경찰에게 성을 상납하기도 하고, 뇌물을 주기도 하고,
그 댓가로 경찰은 도망간 여성들을 잡아다 주지요. 자, 이쯤되면 믿을 데가 없네요.

그런데 어느날, 운명적인 그 날 아침이 왔어요. 그녀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낱파 도망을 쳤거나, 탈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에게 힘을 주는 어느 단체에 연락을 했거나 해서, 극적으로 그 바닥에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지금도 불안하지
요, 언제, 어디서, 누가 들이닥쳐 죽도록 맞고 끌려갈지 모르니까요. 내가 쓴 돈도 아닌데, 그 돈이 대체 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왜 그 돈뎀에 끌려다녀야 하는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잠시 여기서, 포주는 뭘하고 있는지 한 번 볼까요?

아니, 포주는 경찰하고만 친한 줄 알았더니, 검찰하고도 친하군요. 검찰한테 뭘가 일러바치고 있습니다.

"아가씨 하나가 도망을 갔어. 그걸 벌어들 주는 돈이 한달에 몇천인데, 그걸 어떻게 잡나, 주철주철~"

그러자 검찰 나으리 왈, "내가 경찰 붙여줄게~ 격정하"

헉... 경찰서에 잡혀와보니, 그녀는 벌써 사기죄로 고소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맞고 안끌려 간 게 다행이긴 하지만,
이미 내 옆에 서 있는 이 쟁쟁놈들이 날 언제 끌고갈지 몰라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녀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자, 이 얘기를 읽고 나니 어떠세요? 황당하구요?

근데 어쩌죠? 이 황당한 얘기가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국가(합시는) 대한민국' 이란데서 바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성들에게 일자리는 없고, 뭘가 일이 있다고 해서 가보면 이미 저놈들 뒤통에 걸려버린 후인데... 빠져나올 방법도
없고, 내가 쓰지도 않는 빚은 눈덩이 같이 불어나 있고, 경찰도, 검찰도, 포주랑 똑같이 날 감시의 눈초리로 바라보
고..

군산에서 감금된 채 불에 타죽어간 그녀들은 여전히 똑같은 처지로 다른 곳에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보호를 받는 포주에게 여전히 감시당하며 말이죠.

문화제를 준비하여

- 꼬마마녀들 -

반쪽 페미니스트, 나머지 반쪽을 찾아서 - 또랑

내가 고등학교 때 우연찮은 기회로 한 여성주의 사이트를 알게 된 건 꽤나 큰 행운이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나는 페미니즘에는 동조했지만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내세우지는 못했다.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착한 딸, 모범적인 학생, 좋은 친구라는 틀에서도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도 저도 아닌, 반쪽 페미니스트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던 내가 나머지 반쪽을 찾기 위해 이곳 여성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아직도 다른 이들의 시선이 두려운 나에게는 그 작은 일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렇지만 나는 그 문 너머에 펼쳐진 보릿빛 세계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곳이라는 걸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여성위원회의 '또랑'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이렇게 소개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랑스러워지는 나 자신을 느낀다. 나는 더 이상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것이 두렵지 않기에.

물론 문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적응하기 힘든 대학 생활과 매일 쏟아지는 숙제,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수없이 돌려대야 했던 거짓말들도... (부모님에게는 사실대로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테니까.) 이런 점들을 뒤로 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회의를 하고, 기획안을 짜고, 자보를 쓰는 건 만만치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에, 그리고 다름으로 담은 나의 자매들이 함께 하기에, 난 그 안에서 언제나 행복할 수 있었다.

반쪽 페미니스트인 나는, 이제 나머지 반쪽을 찾기 위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문화제를 준비하며... 누에

여성위원회에서 문화제 꼬마마녀 활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또래의 어떤 아이들보다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수준이 높고 깨어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고 여성주의의 메카라고 하는 이화여대에 들어왔다. 하지만 막상 여성운동권에 들어서려고 하자 급진적이고 편협하다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화살들이 내 몸에도 꽃히게 될까 두려웠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페미니즘엔 동조하지만 페미니스트는 되기 싫다는 식의 딜레마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다. 나는 이미 내딛은 한 발자국을 다시 거두어 들여야 할지, 또 다른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망설임 속에서 참여하게 된 3.8 무지개 시위에서 확실하게 깨달았다. 물론 지금의 내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페미니스트가 되는 데 대한 두려움보다는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열정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제대로 된 3차성장을 겪고 페미니스트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요즘 친구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어떤 동아리에 가입할 것인가- 인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무슨 동아리에 들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나는 당당하게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대답하지만 반응은 대체로 '그 게 뭐야?' 이거나 '너 동성애자야?' 이거나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세 가지 유형이다. 이런 반응은 겪을 때마다 혹은 겪을수록 당혹스럽고 때로는 화도 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들을 비

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이렇게 만든 사회를 비난하고 그 사회를 조금이라고 바꿔보기 위함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다시 한 발자국을 내딛고 있다. 이제 망설임은 없다. 나는 이화여대 8대 여성위원회이고, 이 곳에서 만난 반(反)권위적이고 아름다운 자매들을 사랑한다. 아직도 많은 남성들과 그 남성들의 사고에 세뇌되어 자라난 여성들은 우리에게 대해 부정적일 것이지만 그 비난의 화살을 맞기 위해 걸어나가는 내 발걸음은 한없이 가볍다. 그래,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p.s. 문화제 준비기간동안 가뜩이나 할 일도 많은데 많이 모자란 누에 신경 쓰느라 더 힘들었죠? 죄송ㅠㅜ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여위 식구들 만날 수 있어서 누에는 진짜로 행복하구요, 모두에게 감사해요!

페미니즘 문화제를 준비하며 -PK

내가 여성으로서의 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년 전의 일이었다. 그 전까지 나는 18년 이상을 또래 남자애들과의 유대 관계 속에서 얼마 정도 그들과 나를 동일시하며 살아왔고, 한 번도 그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성별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친구'라 믿었던 그들에게서 내가 돌려받은 건 여지껏 각인되어 있는 한 움큼의 폭력 뿐이었고, 그 이후로 나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일원으로서가 아닌 나, 곧 '하나의 여성'으로 홀로 섰을 때, 그제야 나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폭력들을 여과 없이 느낄 수가 있었다. 내가 여성이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해서는 안되는 것들... 나를 둘러싼 수많은 부정과 금기들, 그 이중 삼중의 억압적 굴레 속에서 나는 점차 '나'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길 위에서 만난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았을 때, 그 해 봄으로부터 나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시작되었다.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제각기 다른 가치관을 지닌 자매들과 공통의 억압의 경험들로 한 목소리 안에 섞일 때, 비로소 나는 '18년간의 나'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나를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페미니즘 문화제를 준비하며, 나는 다시 새로운 여행 앞에 발 딛고 서 있는 듯 하다. 그래 하나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한다고 했던 누군가의 말을 기억하며, 나 역시 그리 하리라.

나에게 각인된 억압과 폭력의 기억들을 도려내어 아름다운 피를 흘리고, 그 선홍색 핏자욱으로부터 시작될 봄날의 여행.

봄바람 난 자매들과 함께 사뿐사뿐 생을 딛고 이어질 유쾌한 여행, 이번 페미니즘 문화제가 그 여행의 첫 계단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바라보며 짧은 글을 맺는다.

문화제를 준비하며-주섬주섬 늘어놓는 이야기들 -호수

하나. 세상에나.. 문화제를 '준비하며'라니.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여성위원회를 알게 된지는 2주정도, 호수라는 이름을 얻게된지는 일주일정도 밖에 안되는 왕 초보 꼬마마녀인데. 그래도 여성위원회에서 문화제를 준비하며 정말 행복했다. 이젠 집보다 편안한 여기 여위방에서 여성해방을 마구마구 외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오히려 맞장구쳐주는, 그 분위기에 홀려 2주 정도를 지낸 것 같다.

들. 아직도 여위방에서 오가는 대화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 그래도 여성으로서의 나를 그대로 사랑해도 되는 보랏빛 여위방이 나는 좋다. 전에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자와 동등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과 같이 바지 정장을 입고, 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그래서 '넌 정말 여자 같지 않아'라는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으로서' 내 자신이 이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억압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소위 '여성스러운'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 지위는 그런 것과 무관하여야 하지 않은가.

셋. 내 친구 중에는 마초가 많다. 내가 여성위원회에 있다고 하면 황당해하거나 심지어는 화를 낼 사람도 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에 감히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말한다 해도 그들의 시선을 어떻게 견디어낼지 걱정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해서 물러설 수도, 그럴 생각도 없다. 여성위원회는 미숙하나마 내가 '눈을 뜨게' 해주었고 내가 어떻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의 시선에 대항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시 모르는 척 눈을 감을 수는 없다.'

문화제를 준비하며... -거위

지긋지긋한 수험생의 생활이 끝나고 3개월이라는 무료한 시간을 보낼 때 한 여성해방신학자가 쓴 책을 읽었다. '미래에서 온 편지'라는 책이었는데, '자매'를 강조하는 그녀의 글을 읽고 난 무엇인지 모를 감명을 받은 것 같다. 그렇게 페미니즘이란 말에 단지 호감이 생길 때 즈음 여위 일을 돕게 되었다.

그렇다. 나는 아직 여위인들이 하는 대화의 30%도 알아듣지 못한다.(마초, 녹테, 피씨... 이런 용어들조차 너무너무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이걸 정말 슬픈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정말 무지한 말이지만) 일이기도 하다. 아직 30%도 채 알아듣지 못하는 사정이지만, 나름대로 그녀들의 대화는 정말 심오하고 날카로운 문제라는 것쯤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그녀들은 분명히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슬프고 무서운 일이다. 내가 웃어넘기는 일에 그들은 갈등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되니 말이다. 분명히 전체의 공통된 관심사안이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간과하는 일을 소수만이 느끼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이다.

지난 2주간 여위에서 내가 겪은 일들은 어쩌면 나에게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들의 대화에 놀라고, 내 무지를 깨닫기에 바쁘다. 내 무지를 자각하고 늘어가는 좌절(너무 과격한 표현인가?)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알아야겠다.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어쨌든 나를 좀더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조금씩 배우고 느끼며 공부한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진정한 나'를 마주 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보태기...)))

지난 2주간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여위방에 많이 놀러 있었지만.. 그다지 도움은 안된 것 같아 죄송하네요... '거위'라는 이름 감사(?)합니다^^

제 8대 여성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닌다고 하니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여대 가서 뭐하나 남자 없으면 재미없지.", "그래 시집이나 잘거라.", "남자는 서울대 여자는 이대지."

"이대 애들이 얼마나 독하고 이기적인 줄 알아?", "명품 살려면 돈 좀 들겠다!"

축하와 걱정을 가정한 욕들.. 이보다 심한 것도 많이 들으셨겠죠.

그러나 이러한 폭력들, 왜 이화일까요?

그 이유는 이화가 여성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많은 남성들에게 여성이 여성의 문화를 만들고 여성으로서의 교육을 받는 곳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공간이겠죠.

'남편 수준을 맞추기 위해 교육받는 여성', '사치가 심하고 이기적인 여성', '남자가 있어야 비로소 완전해 지는 여성'...

이대를 향한 시선은 여성을 향한 사회의 보편적인 시선과 다름없어요.

그동안 이러한 시선은 여러 사건들로 구체화됐어요.

십 년이 넘게 이화의 축제 때마다 찾아와 이대는 우리 것이라며 난동을 부렸던 고대생 집단 성폭력,

추위로 인해 움츠려있던 물건을 세우고 싶다는 한양대 단체 미팅 제안 편지,

선정적인 포즈에 '우리 미팅하자'에 '좋아요 오빠'라는 말풍선을 단 서울대 단체 미팅 제안 엽서,

여대에 공대가 있는 건 자원 낭비라는 연세대 게시판,

군 가신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여성이 이야기하자마자 남성문화가 가하는 사이버 테러,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쏟아지는 걱정(-.-)들.

여성위원회는 이러한 억압적인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여성위원회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사건들을 공론화 시키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열리고 있는 페미니즘 문화제에서는 여성의 시각으로 문화를 바라보기도,

여성의 몸에 대한 편견들을 되짚어 보기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성매매를 욕하기도,

여성에게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 지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밖에도 여성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와 학교의 반성폭력 학칙 개정, 여성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불편하고 답답하시나요?

여성임을 포기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그럼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다.

이화 여성위원회로 찾아오세요!

#여성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반대하며 피해자를 지지합니다. 사건의 해결, 여성위원회와 함께 해요.

#학생문화관 218호 (02)3277-4708

이화 여성위원회

<1대>

1996.3.25-30 제1회 페미니즘 문화제

- .4 정대협의 수요시위 참여 시작
- .5 정신대 할머니와의 연대장터
- 대동계 고대생 집단 난동사건 문제제기 및 해결을 위한 여론화 작업
- 서울대 미팅제안 엽서사건
- .6 고대에서 이화인 향의 집회 개최
- .7 학생대회 '성' 파트 기획
- .8 들꽃모임을 창설하여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서울 각 대학의 단위들과 연대

<2대>

- .11 총회 제2대 이화여성위원회 자치기구로 탄생
- I Love Woman, 여성의 주변성이 가지는 힘 power (책자 발행)

- .11 삼성맨 사건 (성폭력 사건 접수 및 대응)

- .12 제2회 페미니즘 문화제 기획단 모집

1997. 1 여성문화에 대한 자체 세미나 전개

- 각 사회여성단체와의 연대
- 고대생 집단 성폭력 근절을 위한 4자 테이블 구성
- .2 고대생 집단 난동 근절을 위한 대책모임 전개
- 정신대 할머니 돕기 온겨레 모금운동 참여
- 故 강덕경 할머니 장례식 및 향의 집회 참가

- .3 3.8 여성대회 참가

- 2회 페미니즘 문화제 자봉단 모집

.3.24-28 제 2회 페미니즘 문화제

- .4 한양대 미팅제안 편지사건
- 학내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결함

- 1차 임시 총회

- 신입위원 모집

- .5 고대생 집단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위원회 구성

- 고대생 집단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이화인 결의대회 주관

- .5 111년 이화대동계, 당신이 고대생 집단성폭력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대동계 기간중 자치의 거리 활동

대동계 기간 중 고대생 집단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 전개

- .6 자체 TS (Team seminar)

'이화를 고민한다' 세미나팀 구성 및 모임전개

- .7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결함

정신대 문제에 대한 자체 교양

'나눔의 집' 방문

- .8 연세대 익명 게시판 사건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이화인 교양

276차 수요시위 주관

1회 페미니즘 캠프 주최

대학=성폭력 박물관 '없는 것이 없다'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
위한 여성연대회의

- .9 3차성징, 이화를 고민한다 창간

이화인을 대상으로 이화여성위원회 대중 평가 작업 및 선전

2대 여성위원회 총회

- .10 금호-행당지구 철거지역 성폭력 사건

<3대>

1998.3.23-27 3회 페미니즘 문화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 .3 온라인 성폭력 사건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97년8월, 98년1월 수요시위 주관

(1회 페미니즘 문화제 기간 중 정신대 할머니 그림엽서전 /
3회 페미니즘 문화제 기간중 정신대 문제 관련 강연 및 사진전)

- .5.11-15 이화성폭력 근절주간 - 내몸에 손대지마 (자료집 발행)

기획거리전- 우리를 괴롭혔던 일련의 성폭력 사건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주관

- .5.14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공청회

<4대>

1998.9 반성폭력주간-거리전

제3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 수립 촉구대회

- .10 제4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 수립 촉구대회

- .11 군가산제 반대 서명운동과 여성노동권 확보제기를 위한 자료집 발간

- .12 침묵에 관한 의문 상영 및 토론회

제 5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 수립 촉구대회

- 1999.1 기활학교 및 기지촌 현장활동
 .1 수요시위 교양학교 및 수요시위 주관
 2000년 학생법정 준비위원회 활동 시작
 .3 제4회 페미니즘 문화제
 .4 신규여성실업문제 해결과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메이데이 기획단 여/생 활동전개
 .5 반성폭력주간-거리전 및 자료집 배포
 인터넷 상의 이대 포르노 대응 활동
 군가산제 반대 시위 -7급 공무원 시험장 앞에서
 연대모임 미인대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KILL' 구성 및 미인대회 반대시위 전개
 .5.11 113주년 이화대동제-
 당신이 고대집단 성폭력에 대해 알고싶은 모든 것 II
 대동제 중 새움터 연대 장터
 대동제중 민중연대한마당에서 여성노동의 현실에 관한 그림자극 공연
 .6 연대통신동호회 익명게시판 사건대응
 군가산제 반대 시위- 9급 공무원 시험장 앞에서
 .7 수요시위 교양학교 개최
 2회 여성연대 한판 기획 및 참가
 .9 3차성징 2호 발간
 5대 여성위원회 발족

〈5대〉

- 2000.3.27-31 제5회 페미니즘 문화제- 나를 긍정하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페미니즘
 . 군가산제 존치안 철회! 실질적 군문제 해결! 평등권 쟁취!를 위한 기획단 '낮은 시선' 활동 -
 기획선전전, 군문제로 인한 여성노동 현실을 폭로하는 퍼포먼스
 .7.20-21 여성연대한판
 전쟁, 폭력, 상처 그리고 여성. 계속되는 전쟁, 끝나지 않은 여성의 상처
 (자료집 발간)

〈6대〉

- 2001.3 자치문화제, 봄날의 개구리, 하늘을 날다!
 .3.10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 총화외 2001년 방향성 모색을 위한 공청회
 .3.26-30 제6회 페미니즘 문화제 Fat? so!
 .9.1 여성주의 황색신문 제1호 두빠
 .11.2-3 퀴어문화제, '레즈비언 퀴어 엠 아이 프리?'

.11.12-17 이화 두 번째 반성폭력 주간

〈7대〉

- 2002.3 자치단위 소개집, 날아라 자치단위
 .3.25-29 제7회 페미니즘 문화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가부장제로부터의 여행
 .8 여성연대한판 기획단 참여

〈8대〉

- .9.28- 사이버테러 대응, 자보전과 공개토론회
 .9 스무살의 페미니즘- 사이버, 또다른 현실 속에서
 .11 2002년도 이화 총학생회 선거 - 그림자 선본 출마 <릴리스 페어>
 . 34대 중선관위의 공청회 거부- 비판 자보와 공개질의
 . 성폭력 사건 접수 및 해결
 2003.1.2월 지역여성에서 도서관 개방하는 올리버 프로젝트 기획
 .2.3-7 기활 참가
 .2 3.7 행패 기획단 참가
 .2 연세 애널즈의 성폭력에 대한 사과요구
 .2.18 반디새내기 규탄 성명서 명의 연대, 한양대 지지성명
 .2.21 새터 여위 홍보 영상물 제작
 .3 총학 비판 자보 및 공개 질의 대답
 .3.7-8 3.8 여성의날 다름으로 담은 연대 무지개 시위 참가
 .3.25-28 제8회 페미니즘 문화제
 .3 총학과의 토론회
 .4.1 연세대학교 '사이버 성폭력' 공개세미나 발제 예정



문화제 후기

또랑

봄바람 난 꼬마마녀 또랑이에요. ^^ 문화제 준비하면서 다름으로 담은 여위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 앞으로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함께 한다면 모두 잘 헤쳐 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자니

반쪽자리 꼬마마녀는 안 되려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고만. 함께 준비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마음은 늘 함께 하려한다는 거 알죠? ^^

누에

힘든 일도 많아지만 문화제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다들 수고 많았고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열심히 해요!

호수

와아 드디어 문화제라 너무 즐거웠구요~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서 넘 고마워요 러부♡

살라

"봄·바람나다." 여위와 함께하게 된건 행운이에요.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우리 여위인들♡해요~*



반짝

공중피시 달던밤 아슬아슬 하던맘
하늘달는 사다리 오돌오돌 내다리
손시리던 보라달 수놓았던 꽃무덤
분홍보라 물줄기 천년지나 남을밤

p.s. 뽀빠, 비, 구름 가자 아이 여울 은미 고마워요.

광기

뒤늦게 나타나서 고생만 시켰죠 여위인들
나중이라도 와서 일도 안하고 입으로만 일한 -_-
최고 1등 미안해. 그치만 뽀빠는 열심히 하자~ ::;



토마

오랫동안 준비한 거 같은데 문화제가 가까워져 오니까
부족한 거 투성이네. 그래도 반짝 후기에 쓴 사람들^^ 없었으면...
오악 상상하기도 싫어. 그리고 꼬마마녀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끼, 쇼콜라, 시나, 반짝 모두 수고했어.

PK

함께한 여위인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거위

여위인들과 함께 해서 정말 즐거웠고요.
부족한 저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는 우리

은초, 짜투리, 모기, 여울엄마, 뽕, 쌀, 엑스, 큰님, 끌라, 예로, 블랙, 사과, 별나, 엠, 라기, 큐라, 포도, 램, 엠마, 비, 데스, 크래쉬, 치즈, 쏘머즈, 바리, 앞새, 마리, 가을, 환, 감, 나무, 따라, 잔디, 튀김, 가자, 구름, 리다, 닝쿨

함께하고 있는 우리

반짝, 시나, 볼피드, 광끼, 토마, 쇼콜라

꼬아 마녀들

거위, 호수, PK, 자니, 토랑, 누에, 살라

special thanx to

가자, 구름, 튀김, 비, 여울, 아이, 로즈메리, 모기



“ 남편을 100% 믿는 여자는 바보다!
적어도 피임에 있어서는 ”

처음 피임을 시작할 때는 부드럽고 순하게 아내가 미리 준비하는 피임약 『미뉴렛』

●제품상담 : 080-022-1010

더 잘 키우기 위해 더 미루고 싶은 당신께
먹는 피임약 미뉴렛을 권합니다.
민감한 여성을 위한 피임약 미뉴렛
이제 부담없이 임신과 출산을
자유롭게 조절하세요.

미뉴렛, 순한 피임약입니다.

호르몬 함량이 낮은 순한 피임약. 미뉴렛-
민감한 여성의 몸을 위한 피임법입니다.

미뉴렛, 생리주기를 규칙적으로 조절합니다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면 한달내내 불안합니다.
생리주기를 규칙적으로 조절해주는 미뉴렛으로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세요.

미뉴렛, 실패율이 적습니다

미뉴렛은 여성이 선택하는 피임법으로 실패율이 적습니다.
미뉴렛으로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미뉴렛, 세계적인 와이어스사에서 만듭니다

세계적 제약회사 와이어스사가 세계 수준의 기술로 미뉴렛을
만듭니다. 미뉴렛은 무엇보다 여성건강을 먼저 생각한, 효과가
입증된 피임약입니다.

※와이어스 어떤 회사인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세계적 기업 와이어스-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에 20년간의 이해관계를 형성한
(AHP)의 자회사인 와이어스는 여성건강, 호르몬, 면역, 심장병 등에서 우수
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임, 여성호르몬, 불임 분야에서 여성들
위한 효과가 높은 의약품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민감한 여자가 선택하는 순한 피임약

미뉴렛 정



행복한 가정은 가족계획 실천으로